

# 南北韓 統一・對話 提議比較

(追 錄 II)

〈1994.11 ~ 1995.10〉

統 一 院  
南北會談事務局



# 차 례

---

▣ 1994年 .....	1
▣ 1995年 .....	27



1994年



## 1994年 主要 提議・主張

■ 1994年 11月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1994. 11. 2 韓·中 外務長 官 會談 (서울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·北合意 이행위해 南北對話 긴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美·北 핵합의의 이행을 위해 南北韓 當事者간의 對話가 중요 하다는데 합의하였음.</li><li>○ 韓昇洲 장관은 「북한의 권력승계가 완료되면 남북한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」임을 확약하였음.</li></ul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1. 1</p> <p>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美·北韓 基本合意文 이행개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는 이미 朝·美合意文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음.</li> <li>○ 政務院은 11월초부터 5만KW, 20만KW 흑연감속로 등의 건설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금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.</li> <li>○ 해당부문에서는 5MW 실험용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기로 하고 준비해 놓았던 새 연료봉들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음.</li> <li>○ 방사화학실험실을 비롯한 연관시설들의 동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음.</li> <li>○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가 이미 朝·美 基本合意文에 따르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.</li> </ul>
<p>1994. 11. 1</p> <p>「聯盟」중앙위원회 聲 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未轉向 出所者 송환요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非轉向 장기수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남조선 통치배들의 부당한 처사를 준렬히 규탄함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이 김인서·함세환·김영태 등을 무조건 즉시 송환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함.</li> </ul>
<p>1994. 11. 2</p> <p>「祖平統」대변인 聲 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南北對話 霧圍氣 조성역행 非難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朝·美 基本合意文이 발표된 시점에서 '94독수리 훈련이 감행되는 것은 중지키로 한 T/S합동군사연습과 간판만 바꾼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이라는데 그 위험성이 있음.</li> <li>○ 조·미 기본합의문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이행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는 매우 심상치 않은 도발임.</li> <li>○ 南朝鮮 當局者들이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 것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,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대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1. 4</p> <p>韓昇洲 外務部 長官 발언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韓 平和協定 체결후 관련국 追認方案 표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국들이 이를 추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.</li> <li>○ 현재의 정전협정에는 UN과 중국이 관여하고 있음.</li> </ul>
<p>1994. 11. 5</p> <p>外務部 대변인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유엔安保理 의장성명 歡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IAEA의 핵동결 감시활동에 대하여 安保理가 IAEA에 추가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치(11.4)라고 평가함.</li> <li>○ 북한이 美·北 合意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남북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.</li> </ul>
<p>1994. 11. 7</p> <p>金泳三 大統領, 經濟人 초청 만찬연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核·經協 連繫 안화방침 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그동안 남북관계는 핵문제에 얽매어 여러가지 어려운 국면을 겪어왔으나 남북간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, 진전시켜나갈 시점에 이르렀음.</li> <li>○ 南과 北이 상부상조의 정신아래 당국간 협의를 거쳐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</li> <li>○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인들의 방북 허용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임.</li> <li>○ 光復 50주년인 되는 내년을 계기로 『民族發展共同計劃』의 구체적 사업에 착수하게 되기를 희망함.</li> <li>○ 北韓이 APEC등 지역공동체와 국제공동체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며, 참여를 원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임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1. 7 外交部 대변인 報道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·北韓 專門家會談 일정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 朝·美는 基本合意文 이행을 위한 전문가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뉴욕에서 일련의 실무접촉을 가져왔음.</li> <li>○ 廢燃料棒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전문가협상을 11.12~19 평양에서, 경수로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전문가협상을 11.30 북경에서, 그리고 連絡事務所 개설을 위한 전문가 협상을 12.6~10 워싱턴에서 개최기로 합의하였음.</li> </ul>
<p>1994. 11. 7 「女盟」중앙위원 회 聲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未轉向 出所者 送還要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非轉向 장기수들의 송환은 이제 더는 지체시킬 수 없는 가장 절박한 人道主義的 문제임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이 송환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인권유린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1. 8</p> <p>統一關係長官會 議 開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經協 活性化 措置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는 제17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남북 경제협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하였음.</li> <li>- 기업인 방북, 북한경제인 초청 허용 등 남북경제인사의 상호 방문 추진</li> <li>- 기술자 방북, 시설재 반출 허용 등 위탁가공교역 활성화</li> <li>-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허용 및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</li> <li>- 제3국에서의 북한인력 시범적 고용, 제3국에서의 합작 및 현 지법인을 통한 투자 허용</li> <li>-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 자보장,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기본틀 마련</li> </ul>
<p>1994. 11. 9</p> <p>韓國記者協會 對北 聲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記者交流 提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호이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남북기자 교류를 시 작할 것을 제의함.</li> <li>○ 남북기자교류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을 빠른 시일내 판 문점이나 서울·평양 등에서 갖기를 희망함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1. 10 「祖平統」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金泳三 大統領의 對北經協 提議 拒否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김○○에게는 그 무슨 協力과 和解를 논의할 명분도 없으며 때늦게 던지는 그의 미소를 받을 사람도 없음.</li> <li>○ 對內外的 孤立과 危機를 벗어나기 위한 한갓 연극이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결정책의 파산을 자인한데 불과 함.</li> <li>○ 經濟協力을 운운하는 이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있음.</li> <li>○ 김○○은 응당 자신의 엄중한 반자주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민족앞에 사죄하여야 함.</li> <li>○ 北南 協力과 交流가 호상 신뢰에 기초해서 착실하게 이루어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1. 12</p> <p>外務部 代辯人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AEA 理事會의 「議長 要約」환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IAEA 特別理事會가 IAEA사무국에 대해 대북 핵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(11.11)한데 대해 이를 환영함.</li> <li>○ UN안보리가 核安全措置協定 이행과 북한의 핵동결감시 수행을 위해 IAEA에 부여한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음.</li> </ul>
<p>1994. 11. 14</p> <p>韓·美·日, 3국 頂上會談 개최 (자카르타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關係 改善이 美·北合意 履行에 艱요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공동 발표문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國 정상은 韓半島의 安定이 역내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 지역의 安保를 확고히 함에 있어서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.</li> <li>○ 3국 정상은 核問題解決을 위한 미·북합의가 역내안정과 번영 증대를 향한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함.</li> <li>○ 3국 정상은 南北對話 再開 및 南北韓 關係改善이 미·북 합의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, 미·북합의 이행의 모든 측면과 각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	<p>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.</p>
<p>1994. 11. 18                      外交部 代辯人                     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韓半島 非核化共同宣言 履行拒否 표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는 朝·美合意에 따라 폐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안전보관하다가 일정한 시기에 가서 완전히 처분하고, 방사화학실험소를 봉인해 IAEA감시하에 두다가 경수로가 完工되는 때에 궁극적으로 해체하게 됨.</li> <li>○ 이것은 北南 非核化宣言에 따르는 우리의 의무를 사실상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됨.</li> <li>○ 이제 북남 비핵화선언을 위해 할 일은 미국과 남조선측에 더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1. 24 南北交流・協力 推進協議會 개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經協 後續措置 確定</p> <p>○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제반국내법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질서있게 추진되기 위해 관련규정과 구체적 대책방안 등을 심의하고 확정함.</p> <p>－ i)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, ii) 국내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, iii)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·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등 3개지침을 확정하여 발표함.</p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1. 19</p> <p>北韓, 美·北 專門家會談관련 報道文</p>	<p>많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조·미합의문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UN과 IAEA가 朝·美合意文을 환영하고 이행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은 하나의 국제공약으로 되었으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美·北韓, 廢燃料棒 처리문제 協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朝·美 전문가들은 '94.11.14~18 平壤에서 5MW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꺼낸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최종처분에 관한 유의하고 건설적인 토의를 진행하였음.</li> <li>○ 협상과정에 영변 5MW 시험원자력발전소와 폐연료 보관시설에 대한 참관을 포함하여 광범한 통보 교환이 진행되었음.</li> <li>○ 廢燃料 保管施設의 물처리를 위한 계획이 토의되었으며, 쌍방 전문가들은 '94.12월에 미결된 기술실무적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다시 가지기로 합의하였음.</li> </ul>
<p>1994. 11. 24</p> <p>勞動新聞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「美 보수세력이 美北合意 이행방해」主張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 강경보수세력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며 北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무력증강을 주장하고 있음.</li> <li>○ 이는 그들이 군사우위와 힘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의 이행을 방해하려는 기도로서 이는 잘되어가고 있는 일을 그르치게 할 것임.</li> <li>○ 南朝鮮에서의 武力增強은 조미기본합의문의 정신에도 균비축소의 추세에도 어긋나는 것임.</li> </ul>
<p>1994. 11. 28</p> <p>中央放送 報道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IAEA 대표단, 北韓核凍結 確認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朝·美 基本合意文에 따라 원자력총국 대표단과 IAEA대표단은 '94.11.23~28 平壤에서 우리 나라와 IAEA사이에 해결해야할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協商을 진행했음.</li> <li>○ IAEA 대표단은 영변과 태천을 방문하고 조·미기본합의문에</li> </ul>

■ 1994年 11月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1. 29</p> <p>「民主朝鮮」論評</p>	<p>지적된대로 核施設들이 정확히 凍結되어 있고 건설작업이 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쌍방은 우리 나라에서 IAEA의 활동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많은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으며 일부 문제들은 다음번 협상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했음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韓이 美北合意 履行妨害 비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김○○일당은 朝美基本合意文 이행을 방해하기 위해 안에서는 대결과 전쟁소동을 피우고 밖에서는 공조체제 청탁놀음을 벌였음.</li> <li>○ 괴뢰들이 對話요 經濟協力이요 떠들어댔지만 이것은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그들의 반민족, 반통일적, 사대매국행위를 감싸기 위한 여론오도 술책이었음.</li> </ul>
<p>1994. 12. 1</p> <p>勞動新聞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對話 再開 불가강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朝美基本合意文 이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그 타개책은 우리와 미국만이 찾을 수 있음.</li> <li>○ 만일 제3자가 그 이행에 부질없이 끼어들려 한다면 그것은 북잡성과 장애만을 조성하게 될 것임.</li> <li>○ 北南對話問題는 그 누구의 개입이나 중재역할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김○○이 나라와 민족앞에 저지른 죄행을 사죄할 때 고려될 문제임.</li> </ul>
<p>1994. 12. 2</p> <p>美·北 경수로 專門家會談 (북경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 경수로 提供 再確認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공동보도문 요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朝·美는 '94.11.30~12.2베이징에서 조선의 흑연감속로와 연관 시설들을 교체하기 위한 경수로 제공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음.</li> <li>○ 쌍방은 朝·美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그리고 합의문 사항들에 맞게 조선에 경수로 대상을 제공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협조하려는 자기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음.</li> <li>○ 協商은 복잡한 문제들을 진지하고 유익하게 취급하였으며</li> </ul>

■ 1994年 12月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2. 7 (株) 湖南精油 發表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北韓에 병커 C유 5만톤 供給</p> <p>○ 미·북 핵협상타결에 따른 대북 대체에너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미국측 제공분의 5만t 규모의 화력발전소 연료용 병커 C유를 12.15~31 공급기로 했음.</p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2. 6</p> <p>「祖平統」書記局 진상공개장 발표</p>	<p>다음번 협상은 '95.1월에 진행하기로 하였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南韓核武器開發 凍結 要求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조선 당국은 現在와 未來의 핵결백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무기개발 동결 의지를 명백히 밝혀야 함.</li> <li>○ 核武器 제작 실상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현존 핵무기 개발 수단들을 완전히 동결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의 非核平和地帶化를 실현하기 위한 회피할 수 없는 의무임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선의적인 조치에 상응하게 핵무기개발에 악용되고 있는 월성중수로와 대덕 다목적연구로, 조사후 시험시설 등 일체 관련수단들에 대한 폐기 및 봉인조치를 하여야 함.</li> </ul>
<p>1994. 12. 9</p> <p>美·北 連絡事務所 所 專門家 會談 (워싱턴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連絡事務所 開設 具體案 接近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공동발표문 요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朝·美 代表團은 基本合意文에 따라 '94.12.6~9 워싱턴에서 연락사무소 교환과 관련한 領事 및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음.</li> <li>○ 쌍방은 領事問題들과 거의 모든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을 보았으며, 남은 문제는 연락사무소의 적합한 부지를 확정하는 것임.</li> <li>○ 쌍방은 '95년초에 부지조사를 위한 전문가대표단을 각기 상대방 수도들에 보내기로 합의하였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2. 16</p> <p>韓·美·日, KEDO 설립 高位實務會議 (워싱턴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KEDO 創立 등 共同目標 설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공동발표문 요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國은 조속한 시일내에 多國籍 컨소시엄 KEDO를 설립하고 그 본부를 뉴욕에 두기로 결정했음.</li> <li>○ 3國은 KEDO의 창립멤버로서 이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음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韓國은 韓國標準型의 경수로 2기를 북한에게 제공하는데서 재정과 건설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임.</li> <li>－ 日本도 경수로 프로젝트의 관리와 재정분야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의향을 표명했음.</li> <li>－ 美國 역시 중유제공을 위한 첫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폐연료봉의 안전 보관 및 처리를 원할히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밝혔음.</li> </ul> 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2. 12</p> <p>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呼訴文 발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콘크리트 障壁 철거 主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콘크리트장벽은 우리 民族의 단일성을 부인하고 統一을 반대하며 정치 군사적 신뢰조성을 가로막는 물리적 차단물임.</li> <li>○ 군부독재시기의 차단봉을 아직도 견어치우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현 남조선당국자들 역시 대결과 분열정책에서 정권유지의 출로를 찾고 있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집단이라는 것을 말해줌.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2em;">* 콘크리트장벽 구축 15돌즈음</li> </ul>
<p>1994. 12. 14</p> <p>外交部長 김영남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弔問謝過 없으면 南北對話 不可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南韓側이 조문금지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한 南北對話는 결코 속개되지 않을 것임.</li> <li>○ 金주석에 대한 인민들의 추도를 경시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함.</li> <li>○ 金正日이 아직 국가주석직을 승계치 않고 있는 것은 3년상을 치르는 전통예법을 따른 것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2. 17</p> <p>韓美聯合司 대북 제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國은 '95.2월에 KEDO創立總會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 참가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임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軍事停戰委員會 召集要求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軍헬기의 12.17 DMZ북방지역 불시착과 관련하여 군정위 소집을 요구함.</li> </ul>
<p>1994. 12. 24</p> <p>金 憲 副總理兼 統一院長官 就任辭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南北關係의 실질적 進展 강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民族共同體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임.</li> <li>○ 統一問題를 현실로 끌어내려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.</li> </ul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2. 19</p> <p>駐유엔 副大使 김종수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停戰協定の 平和協定 代替主張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軍 헬기가 北韓領空에 들어 왔을 때 경고사격을 했으나 착륙하지 않고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 격추시켰음.</li> <li>○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함.</li> </ul>
<p>1994. 12. 21</p> <p>黨·政·團體 代表 표협의회 發表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國家保安法 撤廢 對策委員會 구성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統一의 元年 1995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기는데서 나서는 당면대책에 대해 협의했음.</li> <li>○ 國家保安法 철폐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이기 위한 조직적 대책으로 「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」(위원장 장철 부총리)를 내오기로 결정했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2. 25</p> <p>孔魯明 외무부 장관 就任 記者 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關係 개선은 美北合意 이행에 必須前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·北 合意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됨.</li> <li>○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南北關係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임.</li> </ul>
<p>1994. 12. 30</p> <p>韓·美 頂上 電話 通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韓半島 平和體制는 南北當事者間 問題 強調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金泳三 大統領  발언요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南北 當事者間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의 확고한 유지를 위해 韓·美가 함께 노력해야 함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클린턴 大統領  발언요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번 헬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미국의 어떤 성명도 미 북간의 양자협상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.</li> <li>○ 韓半島 平和問題는 남북한 두 당사자간의 직접 협상에 의해 해결돼야 하며 미·북간에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했음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2. 26 中央通信「詳報」 發表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・北韓 直接接觸 要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든 사실은 美軍 직승기에 의한 우리측 領空侵入이 우리의 자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의도적인 정탐행위라는 것을 실 증해 주고 있음.</li> <li>○ 美군부가 새로운 협상기구를 내올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는 것은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예견한 행동이 아 닌가 하는 의심마저 갖게 하고 있음.</li> <li>○ 사태의 엄중성으로 보아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더 깊이 파헤쳐보지 않을 수 없으며, 우리는 자기의 軍法에 따르는 조 사를 계속할 것이며 그에 따라 처리할 것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2. 30 外務部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對話의 早速再開 및 南北關係의 進展 對北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韓에 억류되어 있는 보비 홀 준위가 송환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함.</li> <li>○ 이번 사건은 韓半島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황의 실체를 재확인한 계기가 되었음.</li> <li>○ 우리는 북한측이 이러한 비정상적 상태의 제거를 위해 南北對話의 조속한 재개와 南北關係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함.</li> <li>○ 남북한간 협의에 의해 現停戰體制가 平和體制로 전환될 때까지 現 정전협정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며, 군정위 활동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4. 12. 30 中·平放 報道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헬기 조종사 送還관련 「諒解文」등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국무성 부차관보 허바드가 대통령 특사로 12.28~30평양을 방문하고 공화국 관계일꾼들과 會談을 진행했음.</li> <li>○ 쌍방 사이의 회담들과 호상 합의한 諒解文에서 미합중국측은 미군 직승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불법침입한데 대하여 인정하고 진심으로 되는 사죄를 표시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담보했음.</li> <li>○ 미국측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막기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조미사이에 軍部接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요구에 동의했음.</li> <li>○ 미국측은 남조선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측의 전쟁포로들인 非轉向장기수들이 빨리 송환되도록 지대한 협력을 할데 대한 우리측의 요구에 응했음.</li> <li>○ 미국측의 이러한 입장과 요청을 고려하여 공화국 정부는 관용성과 인도주의를 발휘하여 미군 직승기 조종사 보비 출을 돌려 보내기로 했음.</li> </ul>



1995年





## 1995年 主要 提議・主張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. 1</p> <p>金泳三 大統領 新年辭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和解 協力を 통한 民族繁榮 對北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계사의 흐름에 맞게 南과 北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함.</li> <li>○ 내실을 다지고 역량을 키워 우리의 오랜 염원인 민족통일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 것임.</li> <li>○ '95년이 나라의 선진과 번영, 민족의 統一과 榮光을 앞당긴 참다운 광복의 시대를 열어나간 해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1. 3</p> <p>金 應 副總理 겸 統一院長官 방송회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關係의 實質改善 方針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95년도 對北政策 기조는 現實主義的 觀點에서 남북한 關係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임.</li> <li>○ 북한은 아직 변화를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며, 美·北 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임.</li> <li>○ 가공적인 논리나 당위성 차원에서의 논의를 그치고 이제는 하 나라도 實踐해가는 통일과정을 시작해야 함.</li> </ul>
<p>1995. 1. 6</p> <p>金泳三 大統領 연두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經濟協力 活性化 조치표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統一은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임.</li> <li>○ 우리는 「民族發展 共同計劃」의 일환으로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것임.</li> <li>○ 민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南北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. 1</p> <p>黨報·軍報·青年報 共同社說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새로운 平和保障體系 樹立 對美要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全民族의 大團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함.</li> <li>○ 나라의 統一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하나의 민족, 하나의 국가, 두개 제도,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임.</li> <li>○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여야하며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여야 함.</li> <li>○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때 朝·美사이의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는 해소되고 신뢰가 조성될 것이며, 그것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이 지대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로 이어지게 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1. 6</p> <p>中央通信 發表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北韓·日本 「觀光協定」 締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平壤 국제체육문화축전(4. 28~30)과 관련한 觀光協定이 최근 조선국제여행사와 日 쯤카이여행사·일본교통공사 사이에 서명되었음.</li> <li>○ 쯤카이여행사와 일본교통공사는 관광객 모집 단일창구가 될 것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	<p>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韓半島 平和體制 구축을 비롯한 남북한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,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南北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수적임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. 9</p> <p>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>이며, 관광객에 대한 입국절차를 독점적으로 취급하게 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美國商品 搬入制限 및 貿易船舶 入港禁止 解除決定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무원은 朝·美 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美國 商品의 우리나라 반입제한조치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무역 거래에서 미국 무역선박의 우리나라 입항을 금지하던 조치를 1월 중순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음.</li> <li>○ 이번 해제조치로서 우리는 朝·美 基本合意文에 명시된 무역투자장벽 완화와 관련한 조항에 따라 지닌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됨.</li> </ul> <p>*美 國務部,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(1. 20)</p>
<p>1995. 1. 16</p> <p>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韓國型 輕水爐 明記 拒否表明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·日·남조선 3자 실무협상에서 경수로 제공계약서에 경수로의 型을 남조선型이라고 명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함.</li> <li>○ 여기에는 朝·美 기본합의문 이행에 攄방을 놓으려는 남조선 당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음.</li> <li>○ 남조선형을 계약에 명기하겠다는 것은 朝·美 합의에 따르는 경수로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같음.</li> </ul>
<p>1995. 1. 20</p> <p>美·北韓 폐연료봉 전문가 회담(평양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2차 廢燃料棒 協商 「共同報道文」 발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. 18~20 진행된 폐연료봉 전문가협상은 유익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의의있는 진전을 이룩했음.</li> <li>○ 5MW 실험용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의 안전한 보관과 최종 처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. 21 外務部 代辯人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對話의 進展이 있어야 追加的 緩和措置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북한의 核活動 凍結등 의무이행에 맞추어 취해진 초보적 조치임.</li> <li>○ 美國은 향후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위해서는 南北對話의 진전을 포함한 제네바 합의사항의 이행 및 여타 관심분야에서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.</li> <li>○ 금번 완화조치가 북한의 개방 및 성실한 美·北 合意 이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. 23</p> <p>外交部 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東北亞 多者安保對話 反對立場 表明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東北亞地域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앉는다고 해도 기대할 것은 없으며 도리어 복잡성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임.</li> <li>○ 동북아지역에 냉전의 후과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에게 대한 일부 세력들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동북아지역에 그 어떤 다무적 성격의 安保對話 출현도 반대함.</li> </ul>
<p>1995. 1. 24</p> <p>정당·단체 연합회의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8·15 共同慶祝 및 「大民族會議」 개최 對南提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국해방 50돐을 南北, 海外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공동으로 경축할 것을 제의함.</li> <li>○ 8·15 민족공동의 경축행사를 계기로 北과 南, 海外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「大民族會議」를 열고 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협의 확정할 것을 제기함.</li> <li>○ 北을 방문할 것을 원하는 남조선과 해외의 모든 정치인들과 인사들에게 언제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 단체들, 개별인사들과도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음.</li> <li>○ 온 민족이 8월의 대축전장에 자리를 같이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함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. 25 統一院 次官 聲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·15 共同慶祝行事 및 懸案問題 협의 次官級 會談 수정제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韓의 大民族會議 개최제의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.</li> <li>○ 북한측이 광복 50주년을 공동으로 경축하자고 제의해 온 것을 환영함.</li> <li>○ 光復節 共同慶祝行事를 포함한 南北간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.</li> <li>○ 쌍방 당국의 次官級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주앉게 되기를 기대함.</li> <li>○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北韓側이 정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면 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1. 25 李基澤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對話 및 關係改善을 위해 訪北用意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南北頂上會談의 조속한 개최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계구축,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.</li> <li>○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천명해 놓은 北韓訪問을 조속히 실현 시키도록 하겠음.</li> <li>○ 남북 정부사이의 對話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야당대표라도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국익을 위해 시의적절한 일이 될 것임.</li> </ul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. 24 外交部 代辯人 報道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國의 重油 5만톤 引受 發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國側은 증유 5만t을 1.17과 1.19 선봉항에 운반해 왔으며 1.23까지 하선작업을 전부 끝마쳤음.</li> <li>○ 1.20 美國무성은 재산동결 해제 등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첫 단계의 조치를 발표하였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. 27</p> <p>孔魯明 外務部 長官 연설</p> <p>* 지역정책연구 원 조찬 강연 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경수로 제공에 南北對話 必須 強調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수로가 북한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직접대화가 필수적임.</li> <li>○ 現정전체제는 南北韓間 直接對話를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할 수 없음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. 27</p> <p>勞動新聞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側의 次官級會談 提議拒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南朝鮮 當局이 당사자들인 政黨·團體들과 各계대표들이 의사 표시도 하기전에 제일 먼저 나서서 그것을 가로막는 언동을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분별없는 망동임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이 8·15 共同慶祝行事는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大民族會議는 통일전선방식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공동경축 자체도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논리임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이 이번 성명에서 취한 태도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 민족의 염원에 도전하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범죄행위임.</li> </ul>
<p>1995. 1. 28</p> <p>社會民主黨 代 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李基澤 民主黨 代表 平壤訪問 招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平壤방문 의사를 다시금 밝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 기회에 이기택 대표를 평양에 초청한다는 것을 알리는 바임.</li> <li>○ 平壤방문이 실현되면 공화국 북반부의 책임있는 정당대표들과 한자리에 마주앉아 統一問題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결상태에 있는 北南關係를 개선하는 출로를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2. 1</p> <p>社會民主黨 김 병식 위원장 對南便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李基澤 민주당 대표에게 南北政黨會談 제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8.15 統一大祝典과 大民族會議를 실현하는 여기에 '90년대 통일의 열쇠가 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서는 北과 南의 정치인들이 하루빨리 만나야 함.</li> <li>○ 北과 南의 정당들이 우선 만나 흥금을 터놓고 의견을 나누게 되면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임.</li> <li>○ 이와같은 견지에서 귀당에 접촉을 실현할 것을 정중히 제의함.</li> <li>○ 시일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장소로는 평양·서울이나 혹은 板門店도 좋고 제3국도 무방할 것임.</li> </ul> <p>*「祖國戰線」중앙위, 민자당·신민당·새한국당에도 유사내용 便紙 발송</p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3</p> <p>金 應 副總理兼 統一院 長官 對北聲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高位當局者會談 對北提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월 평양 국제체육문화축전에 해외동포들만이 아니라 남쪽의 이산가족들도 함께 참관케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.</li> <li>○ 이산가족들의 필요한 생활물자 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안을 쌍방 당국이 함께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.</li> <li>○ 빠른 시일안에 한국 언론인들의 非政治的 分野에 대한 방북취재활동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함.</li> <li>○ 우리기업들의 經濟活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나진·선봉지역만이 아니라 그 어느지역도 방문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가 뒤따르기를 기대함.</li> <li>○ 우리 기업인들이 판문점을 통해 남북을 왕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해 줄것을 촉구함.</li> <li>○ 이상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남북의 책임있는 고위당국자들이 서울·평양·판문점 등 어디서든 빠른 시일내에 마주앉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1</p> <p>제2차 美·北韓 경수로 專門家 會談 (1.28~, 베를린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차 경수로 協商 「共同報道文」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朝·美는 '95. 1. 28~2. 1 베를린에서 조선에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교체하기 위한 경수로발전소 제공에 관한 제2차 협상을 진행하였음.</li> <li>○ 쌍방은 朝·美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그리고 합의문의 사항들에 부합되게 조선에 경수로 대상을 제공하기위한 협정이 체결되도록 협조하려는 자기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음.</li> <li>○ 쌍방은 協商에서 일련의 진전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, 경수로提供協定 締結을 위하여 합의되어야 할 주요문제들에 는 원자로型과 제공범위, 재정문제들, 계약체결방식, 핵안전과 책임 그리고 경수로 대상과 관련한 필요한 담보들이 포함된다 는데 대하여 인정하였음.</li> <li>○ 핵안전문제에 관한 기술협의를 진행하였으며, 경수로 대상에 관 한 다음번 협상은 '95. 3월중에 가능한한 빨리 진행하기로 함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3</p> <p>孔魯明 外務部 長官 記者會見</p>	<p>을 수 있기를 희망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위당국자의 수준과 회담개최시기 및 장소의 선정문제는 북측에 일임함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對北경수로 供給協定은 南北對話 없이도 가능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南北對話에 진전이 없어도 제네바 북·미합의에 따라 오는 4월 21일 이전에 對北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될 수 있음.</li> <li>○ 北·美合의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 남북대화가 조화있게 병행돼야 하지만 둘 사이에 직접연계가 있는 것은 아님.</li> <li>○ 공급협정이 체결되면 南北對話가 촉진될 계기가 될 것임.</li> <li>○ 北·美연락사무소 개설은 南北關係改善 등 모든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2. 6</p> <p>統一院 代辯人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南北高位當局者會談 수용 對北促求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勞動新聞 논평(2.6)은 아직까지 비난 자체일뿐, 공식적인 北韓 당국차원의 거부 의사로는 볼 수 없음.</li> <li>○ 북한측은 우리측 부총리의 對北聲明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의를 하루빨리 받아들여, 한 사람의 이산가족이라도 더 만나게 하려는 우리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호응해 오길 기대함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6                      勞動新聞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側의 南北高位當局者會談 제의 拒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조선 통일원장관이 행사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산가족 상봉이니 뭐니하며 끼어들어보려하는 것은 그야말로 분수에 맞지않는 상식이하의 무례한 행동임.</li> <li>○ 평양국제체육 및 문화축전에 누구를 초청하는가 하는 문제는 주인인 우리가 필요한 때에 가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임.</li> <li>○ 우리의 정당, 단체연합회의에서 이미 내놓은 조국해방 50돐 통일대축전행사 및 대민족회의 소집과 관련한 제안을 실현하는데 훼방을 놓는 행동이나 하지 않아야 함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자들은 지난해 대방의 유고에 조의예절마저 지키지 않고 대결국면으로 몰아간 반민족적 범죄행위에 대해 응당사죄 하여야 하며, 반통일약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.</li> </ul>
<p>1995. 2. 8                      「祖平統」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남북대화 분위기조성 대남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조선 당국자들은 지난 4일 외무부장관을 직접 미국에 보내어 南北對話 재개문제를 구걸하는 이른바 청탁외교를 벌이고 있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9</p> <p>統一院 代辯人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 從軍慰安婦 관련회의 北側參加問題  긍정검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政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하는 「제3차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(2. 27~3. 1)」에 北側代表團의 參席 허용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중임.</li> </ul>
<p>1995. 2. 10</p> <p>金 應 副總理兼 統一院長官 관 훈토론회 연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南北原子力 協定」 必要性 強調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南北關係가 경색되고 있는 1차적 이유는 북한권력 체계의 불안정에 있으며, 남북정상회담문제는 북한에 새 主席이 선출되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임.</li> <li>○ 北韓은 현재 한국型 경수로를 수용하는 것외에 대안이 없으며,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는 北美合意 이행과 연계될 것임.</li> </ul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8</p> <p>從軍慰安婦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 代辦人 談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과 南의 對話問題는 民族內部 問題로서 남에게 청탁할 일도 아니며 또 누구에게 청탁한다고해서 해결될 問題도 아니고 대화의 좋은 분위기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음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對話를 再開할 의사가 있다면 동족에게 자신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를 사죄하는 일부터 해야하며, 동시에 國家保安法과 같은 반대화, 반통일악법을 폐기함으로써 대화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실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함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차 서울 從軍慰安婦問題 관련회의 參加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는 北과 南의 여성들이 조국해방 50돐을 계기로 일본의 과거죄행을 폭로하고 피해보상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대일공동행동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함.</li> <li>○ 제3차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우리측에서 전 종군위안부를 포함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보낼 것임.</li> <li>○ 빠른 시일안에 쌍방이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실무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함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16</p> <p>金 憲 副總理兼 統一院 長官 연설 *「민주평통」 자문회의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高位當局者會談 호응 對北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平和協定問題를 미북간의 논의로 생각할 수 없으며, 2+2 方式 타결문제는 우선 남북한 체결후 문제이며, 국제적 보장문제는 그 뒤의 일임.</li> <li>○ 韓國이 한국형 경수로의 공급자가 되면 南北間 「원자력협정」의 체결이 불가피하며, 그 時期는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5년이내가 될 것임.</li> <li>○ 실질적인 한국형 採擇이 보장되면 기종을 표현하는데 있어 明記는 다를 수 있으나, 한국형 이외의 다른 것으로 誤解될 소지는 없어야 함.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올해가 光復 50주년인 해만큼 북한이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南北對話의 재개와 실질적 개선에 성의있게 호응해오기를 기대함.</li> <li>○ 韓國형경수로를 거부하는 것은 美·北 合意구도의 이행에 장애로 될 것이며 한국형경수로를 받는 것이 안정성은 물론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함.</li> <li>○ 北韓이 계속 美·北韓평화협정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것임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15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韓國型 경수로 강요시 美·北合意 파기위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國이 무조건 한국형이라는 이름까지 강요하려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으며, 경수로型 문제와 관련한 압력수단으로 T/S 훈련 재개 소문까지 내들리고 있음.</li> <li>○ 이때문에 설사 朝·美合意가 깨진다해도 그리고 T/S훈련때문에 모든것이 조·미회담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간다해도 우리는 잃을 것이 없음.</li> <li>○ 美國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基本合意文이 이행되지 못할바에는 경수로 제공논의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초기단계에서 합의문이 깨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나을 수 있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한이 평양축전에 해외동포와 외국의 언론인들은 초청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참관과 우리측 언론인의 방북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북한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다시한번 촉구함.</li> </ul>
<p>1995. 2. 22</p> <p>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就任辭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經協 통한 南北關係개선 方針 闡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·美간의 제네바합의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 추진을 통한 南北關係 개선을 트는데 주력해 나가겠음.</li> </ul>
<p>1995. 2. 23</p> <p>李俊求 南北連絡 事務所 南側所 長 對北 電通文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從軍慰安婦 연대회의 관련 連絡官接觸 제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측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요청에 위해 제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하는 북측대표단의 판문점통과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편의제공 등에 관한 협의 및 신변안전보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20</p> <p>北韓 從軍慰安婦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 대책위 對南 電文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차 서울從軍慰安婦 연대회의 參加名單 登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표단은 종군위안부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함.</li> <li>○ 2월 26일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하여 나가려하며, 신변안전담보 각서를 속히 보내주기 바람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대표단 명단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장 : 홍선옥(상무위원)</li> <li>- 성원 : 최금춘(상무위원), 리은심(위원), 박성옥(부서기장), 강덕순(위원), 김성림(위원), 박영심(종군위안부)</li> </ul>
<p>1995. 2. 21</p> <p>아시아太平洋平和委 김용순委員長 對南 便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大民族會議關聯 金大中 「亞太財團」 이사장 接觸提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민족회의 소집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일안에 우리 위원회와 귀이사회 대표들이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것을 제의함.</li> <li>○ 상봉 장소로는 평양도 좋고 서울이나 제3국도 무방함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24</p> <p>外務部 代辯人 論評</p>	<p>장각서 수교를 위하여 2. 26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쌍방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측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연락관 2명이 나갈 것임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基本合意書 및 現停戰協定 준수 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한측의 폴란드 중감위대표단 강제철수 위협 행위는 정전협정 자체는 물론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정전협정의 준수를 명시한 남북기본합의서 기본정신에 전면 위배되는 것임.</li> <li>○ 우리는 북한측의 이와같은 정전체제 와해책동에도 불구하고,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대로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 체제를 확고히 준수해 나갈 것임.</li> <li>○ 우리는 북한측이 폴란드 대표단에 대한 일방적 철수위협을 즉시 철회함으로써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함.</li> </ul>
<p>1995. 2. 25</p> <p>國防部 代辯人 發表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95 팀스피리트 訓練 中斷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政府는 그간 美國과 긴밀한 협의하 북한 핵관련 제네바 협의회 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면서 '95 T/S 훈련의 실시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왔음.</li> <li>○ 제네바 合意事項은 현재 이행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, 韓·美 양국은 북한의 동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, 이러한 기대에서 금년 3월중 실시기로 계획되었던 T/S 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음.</li> </ul>
<p>1995. 2. 26</p> <p>統一院 代辯人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人的 왕래시 板門店 連絡官接觸은 쌍방당국간 慣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측은 우리측이 身邊安全保障覺書 대신 訪問證明書를 발급한 것처럼 왜곡하면서 이를 불참 사유로 내세우나 이는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임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24</p> <p>外交部 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韓半島 平和保障體系樹立에 南韓排除 主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선반도에서 停戰協定을 대신하는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할 문제임.</li> <li>○ 더욱이 우리와 북남합의서를 통하여 불가침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해 놓은 남조선 당국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간참하는 것은 북남합의서를 백지화하려는 시도임.</li> <li>○ 만일 미국이 법률적 견지에서나 남조선에 있는 현 무력의 실태의 견지에서보나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의 실천적 담당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더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2. 25</p> <p>從軍慰安婦 및 태평양전쟁피해 자 보상대책위 聲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차 서울 從軍慰安婦 연대회의 不參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 대표단이 회의성격상 판문점에 있는 적십자통로를 이용하여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려한 것은 지극히 당연함.</li> <li>○ 그런데 남조선 당국이 나서서 신변안전담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며 회의참가를 방해하였음.</li> <li>○ 우리 대표단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이와같은 불순한 책동을 반민족, 반통일 행위로 인정하며 강력히 규탄함.</li> <li>○ 우리측이 부득이 회의에는 참가 못하지만 준비된 토론문들과 결의문 초안을 주최측에 보낼 것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28</p> <p>外務部 代辯人 聲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韓半島 平和體制는 當事者가 解決할 問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북간의 판문점을 통한 인원왕래시 連絡官接觸을 갖는것은 20여년간 지속되어온 오랜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당국개입 운운하면서 연락관접촉 자체를 시비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.</li> <li>○ 북측이 모처럼 마련된 민간교류행사에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방문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韓半島 平和體制는 當事者가 解決할 問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韓은 외교부대변인 담화(2.24)를 통해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수립문제에 있어 大韓民國의 當事者 地位를 부정하고 美國과 平和協定 策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.</li> <li>○ 북한 주장은 法的, 現實的 측면에서 정전협정의 엄연한 당사자인 우리의 지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음.</li> <li>○ 정부는 當事者解決 원칙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공고한 平和體制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,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現 停戰協定을 준수해 나갈 것임.</li> </ul>
<p>1995. 3. 1</p> <p>金泳三 大統領 제76주년 3·1 절 기념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誹謗·中傷 中止 對北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과 북은 이제 統一의 큰길을 활짝 열어아하며 먼저 화해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함.</li> <li>○ 우리는 이미 北韓의 경수로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經濟協力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北韓과 교류, 협력態勢를 갖추고 있음.</li> <li>○ 이제는 北韓이 변화해야 하며, 민족자존과 민족단합의 3·1정신에 반하는 같은 민족에 대한 비방중상을 中止해야 함.</li> </ul>
<p>1995. 3. 3</p> <p>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記者 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KEDO 設立協定에 韓國標準型 明示確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輕水爐 公營협정은 KEDO가 북한과 체결하고, KEDO는 다시 한국과 상업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될것임.</li> <li>○ KEDO 設立協定 문안에는 한국표준형이 적절하게 표기될 것이</li> </ul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2. 28</p> <p>外交部 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停戰機構 無實化 策동 合理化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는 지난해 4월 공고된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 제안을 내놓고 그 과정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軍停委會에서 자기 대표단을 주동적으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했음.</li> <li>○ 中監委會에 와있던 聃스카 대표단의 철수문제는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할 필수적 요구임.</li> <li>○ 聃스카 정부가 우리의 권고에 이해를 표시하고 中監委會에 와있던 자기대표를 철수시키는 것은  조선반도에서  평화과정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3. 7</p> <p>金泳三 大統領 演說</p> <p>* 독일 외교단체 초청연설 (베를린)</p>	<p>며, 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협정에도 한국형은 명확히 들어가야 할 것임.</p> <p>○ 北韓에 제공될 원자로는 한국회사가 설계·제조·건설하는 한국표준형 원자로이며, KEDO의 주계약자가 한국기업이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北韓에 穀物·原資材 提供  표명</p> <p>○ 우리는 北韓이 필요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協力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, 北韓에 곡물을 비롯 필요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用意가 있음.</p> <p>○ 北韓은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의 불신과 반목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서로 화해함으로써 交流·協力하는 길을 터나가야 함.</p> <p>○ 정부는 南과 北이 급격한 통일에서 오는 불필요한 희생은 줄이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民族共同體를 건설하고 3단계 과정을 축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떤 노력과 희생도 감수할 것임.</p>
<p>1995. 3. 7</p> <p>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記者 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KEDO 지원은 輕水爐에 局限</p> <p>○ KEDO는 제네바합의 문안대로 경수로 支援에 국한할 것이며 송배전시설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.</p> <p>○ KED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는 韓·美·日 3국이 각각 거부권을 갖는 전원합의체로 運營될 것이며 전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나 자문위원회는 권고적 기능만 가짐.</p>
<p>1995. 3. 8</p> <p>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金泳三 大統領의 對北穀物提供관련 當局者 對話促求</p> <p>○ 金泳三 大統領의 대북 곡물, 원료, 물자제공 용의와 민간차원 교류·협력의 적극 권장 등은 남북간의 實質的 關係改善과 화</p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3. 7</p> <p>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韓國型 輕水爐 拒否 거듭주장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는 지금 輕水爐 提供協定이 조-미사이에 합의된 4. 21까지 체결될 수 있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, 심지어 경수로에 대한 기대마저 허물어지고 있음.</li> <li>○ 우리 核施設들의 동결과 그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, 정기 및 비정기사찰의 재개, 담보협정의 완전이행, 폐연료의 안전한 보장과 궁극적인 처분, 핵연료와 연관시설들의 해체 등 조미기본합의문 이행 전반은 경수로 협정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고 상호 맞물려 있음.</li> <li>○ 만일 남조선형을 고집하는 미국 태도로 말미암아 경수로 협정이 합의된 기간내 체결되지 못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결심을 내리고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음.</li> </ul>
<p>1995. 3. 7</p> <p>政黨·團體 대 표협의회 進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8·15 統一大祝典 北側準備委員會 結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8·15 통일대축전을 北과 南, 海外가 공동추진하려는 염원에서 「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」를 결성하기로 결정하고 성원을 선출했음.</li> <li>— 준비위원장 : 김용순</li> <li>부 위원 장 : 4명의 정당·단체 책임일꾼</li> <li>위 원 : 20명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記者懇談會</p>          <p>1995. 3. 9</p> <p>韓·美·日 3 國 핵대사 合意 (뉴욕)</p>	<p>해·협력,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, 이에 대해 北側은 마땅히 긍정적 호응을 해야 할 것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는 작년 11월 經協活性化 조치를 기조로하여 일관성 있는 원칙과 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질서있고, 단계적인 경협을 지속적으로 推進해 나갈 것임.</li> <li>○ 穀物 등의 물자를 장기저리로 提供하는 것은 민간차원보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간 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나, 별도의 새로운 對話提議보다는 이미 열어놓은 남북대화 채널을 활용해 북측이 呼應해 올 경우 언제든지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 그 실현을 뒷받침할 것임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KEDO 公式 發足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KEDO 설립협정은 韓國 崔동진 경수로기획단장, 美國 갈루치 국무부核대사, 日本 엔도 대사 등 3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음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KEDO 設立協定 요약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目的 및 機能 : 1천메가와트 용량의 한국형 경수로 2基로 구성되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과 공급, 對北 대체에너지 공급 등 北美 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履行을 위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KEDO는 北韓에 이전되는 核物質, 장비 및 기술이 전적으로 경수로 사업을 위해서만, 평화적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이용되도록 北韓으로부터 공식적인 보장을 받아야 함.</li> </ul> </li> <li>○ 構成 : 원회원국과 일반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원회원국은 韓·美·日 3국이며, 일반회원국은 KEDO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국가로 구성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집행이사회는 원회원국인 韓·美·日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, 집행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3국 全員合意를 통해 이루어짐.</li> </ul> </li> <li>○ 財政 및 法的地位 : 각 회원국은 적절한 資金提供 등으로 KEDO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며 그같은 기여금은 KEDO뿐 아니라 KEDO의 계약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음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3. 9</p> <p>崔東鎮 경수로 기획단장 記者 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輕水爐 지원 韓國의 中心的 役割 強調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형이란 韓國이 경수로 공급에서 中心役割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, 한국기업이 설계와 제작·건설을 담당하고 외국기업은 하청만 가능함.</li> <li>○ 미북경수로 專門家會談은 베를린에서 3월하순 만나기로 한 합의사항이므로 美國이 KEDO의 위임을 받아 協商에 임하고 다음부터는 KEDO가 협상주체가 될 것임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3. 10 平壤放送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金泳三 大統領의 對北物資 提供提議 拒否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統一問題·北南關係 문제를 장사꾼의 더러운 솜씨로 해결해보려는 김○○이나 나○○의 너절한 처사는 온민족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 마땅하며, 통일문제·북남관계문제는 결코 물건잔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님.</li> <li>○ 부총리 나○○가 기자간담회에서 北에 대한 그무슨 물자지원 제의라는 말갈지도 않는 수작을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우면서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이라느니 呼應을 期待한다고 입방아를 찧었음.</li> <li>○ 김○○이 北南和解와 協力を 바란다면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각종 형태의 전쟁연습을 중지하고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야 함.</li> </ul>
<p>1995. 3. 11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韓國型 輕水爐 수용불가 및 KEDO와 協商拒否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國이 남조선型 경수로를 반대하는 입장을 끝내 무시하고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구의 목적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사실상의 도전이며 조미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스스로 선포한 것이나 같음.</li> <li>○ 만일 美國이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機構를 우리와 맞붙혀 놓으려하거나 그 무엇을 강요하려 한다면 경수로 협정은 아무때 가서도 성사될 수 없게 될 것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3. 20 統一院 代辯人 聲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굴업도 核廢棄物 처리장의 立地妥當性 확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원자력의 平和的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安全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북측이 시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.</li> <li>○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의 입지 타당성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檢證과 確認을 받은 바 있음.</li> <li>○ 北韓이 「남북합의서의 전면백지화」 운운은 남북당국간 對話를 계속 회피하고 기존의 남북합의사항을 파기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는 불순한 意圖에도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람.</li> <li>○ 南北基本合意書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의 장</li> </ul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3. 15</p> <p>「祖平統」書記 局長 백남준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合意書 전면 白紙化 威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조선 모자를 씌운 경수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납입 될 수 없으며, 우리는 경수로 사업에 美國만을 기본협상자로 간주할 것임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이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합의서가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 함.</li> <li>○ 만일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여 북남관계를 파국 에로 몰아가는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우리는 민족의 생 존과 후대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 임.</li> </ul>
<p>1995. 3. 16</p> <p>8·15 統一大祝 典 북측준비위 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韓 「全國聯合」측에 接觸 提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의 결정이 우리와 뜻을 같이하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를 환영함.</li> <li>○ 공통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고 보면서 빠른 시일안에 쌍방이 제3국에서 접촉을 가질 것 임 제의함.</li> </ul>
<p>1995. 3. 20</p> <p>外交部 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駐韓美軍 장비증강 非難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國은 남조선 미군현대화 계획에 따라 지난 두달동안 이미 20 대의 다목적 고속이동차량을 남조선에 반입하였고 앞으로 500 대의 고속이동 차량을 더 끌어들인다고 함.</li> <li>○ 이러한 대대적인 무력증강 책동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 와 안전을 공약한 조·미 기본합의문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행 동임.</li> <li>○ 美國은 긴장완화의 현 국제적 추세와 朝·美 基本合意文 정신 에 역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압력시도를 포기하 고 남조선에서 무력증강 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함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3. 22</p> <p>金泳三 大統領 연설 * 육사 임관식 치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核合意 不履行時 세계의 對北膺懲 경고</p> <p>전이며, 쌍방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엄숙한 민족적 약속으로 이를 破棄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한은 우리측에 대한 중상모략과 비방선동행위를 중단하고 當局間 對話에 呼應해 나올 것을 촉구함.</li> </ul> <p>○ 北韓이 만약 核合意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한다면 전세계의 응징을 면치 못할 것임.</p> <p>○ 北韓은 오래전부터 올해를 統一의 해로 정해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며, 최근에는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우리 政府에 대해 격렬한 非難과 군사정전협정의 무력화 기도를 계속하고 있음.</p>
<p>1995. 3. 22</p> <p>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記者懇談會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經協은 南北關係 進전에 따라 擴大 表明</p> <p>○ 南北經協은 임가공·생필품 교류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되, 다소 엄격한 현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, 남북관계가 進展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음.</p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3. 21</p> <p>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美國의 對北유엔제재시 自衛措置 警告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國이 합의문 이행의 첫단계에 불과한 지금 대화상대방에 대한 제재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누구의 충동으로 입장을 변경시켰음.</li> <li>○ 美國이 남조선형 경수로를 고집하는 것은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임.</li> <li>○ 경수로 협정체결이 지연되는 것을 목인하고 일방적으로 核동결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.</li> <li>○ 만일 이 문제와 관련 부당한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그에 대처해 자위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며, 우리는 경수로 공급에 관한 3단계 協商에서 올바른 자세로 나오기를 주시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3. 22</p> <p>朝鮮反核平和委員會 對南便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굴업도 핵폐기물 處理場建設 沮止 共同鬭爭 제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굴업도 核廢棄物 처리장 건설을 저지시키는 것은 北과 南의 반핵운동가들과 환경보호 단체들의 절박한 과제이며 민족적인 의무임.</li> <li>○ 우리 조선자연보호연맹과 반핵평화옹호단체들은 남조선 전국반핵운동본부,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반핵 및 환경보호단체들에 굴업도 核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저지시키기 위한 공동투쟁대책을 협의할 것을 제의함.</li> <li>○ 雙方代表들의 협의장소는 양측이 편리한 곳으로 정하되, 귀측이 제기하는 임의의 장소라도 무방할 것이며 접촉날짜는 빠를수록 좋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3. 29 金泳三 大統領 記者會見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人的交流는 김일성 생일과 평양축전 등이 있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5월 이후 추진이 바람직함.</li> <li>○ 당분간 停戰協定을 지켜 나가되 남북간에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평화체제 정착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韓國型 拒否時 對北輕水爐 지원 不可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韓國型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선택이며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韓美 양국의 확고한 입장임.</li> <li>○ 한국은 비용부담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경수로 문제와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3. 23</p> <p>美北 輕水爐 會 談 北側團長 김 정우 記者會見 (베를린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4·21」은 美·北 輕水爐 協商  최종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회담에서 한국형 채택문제는 의제조차 될 수 없으며, 협상진전 여부는 경수로 선정에 관한 미국측 태도에 달려있으며,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일자인 4.21은 완료일자임.</li> <li>○ 이번 협상의 진전여부는 경수로 爐型 선정문제가 어떻게 해결 되느냐에 달려있으며, 이는 北美 기본합의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임.</li> <li>○ 美國의 이번 협상은 실제로 합의문 이행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간주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3. 28</p> <p>평양시 행정경 제위원장 박남 기 연설</p> <p>*평양시 군중 집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金日成 弔問관련 對南 非難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김○○이 統一院 代辯人을 내세워 지난해 우리의 유고당시 저들의 대응태도가 지극히 적절한 조치였다느니, 발언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느니 하고 도전해 나선데 대해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거세찬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음.</li> <li>○ 우리는 남조선 통치배들이 저들의 죄행을 사죄할 대신 조의에 절 문제마저 정치화하여 사람들을 위협공갈하는데 대해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음.</li> <li>*「직맹」위원장 주성일·「사로청」위원장 최용해·「농근맹」위원장 최성숙, 조문관련 남측행위 비난 담화 각각 발표</li> </ul>
<p>1995. 3. 29</p> <p>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北輕水爐 協商에서 「劃期的 提案」主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측은 경수로형 문제와 관련한 협상(3. 25~27 베를린)에서 현재의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 제안을 내놓았으며, 미측은 우리 제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	<p>관련한 대화채널은 KEDO가 되어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頂上會談은 北韓측이 유고로 연기했던 만큼 권력승계절차가 끝난후 먼저 적절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순서임.</li> <li>○ 經協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의 보장과 제도적 틀이 필요하며,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화가 필수적임.</li> </ul>
<p>1995. 3. 30</p> <p>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발언</p> <p>* 이코노미스트 클럽연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韓 排除時 對北輕水爐 事業 不可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가 북한 경수로 건설 비용을 대부분 대기로 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면서 민족공동체의 경제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.</li> <li>○ 최근 베를린 회담에서 북한이 경수로 건설에 한국참여를 허용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하청수준에 불과하며, 정부는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.</li> <li>○ 북한은 우리를 소외시킨채 북미간 교섭만으로는 경수로 사업 자체의 성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4. 1</p> <p>南北基督教人 共 同發表文 채택</p> <p>* 제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·15 南北韓 共同禮拜 板門店 개최 合意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(회장 오충일)·조선기독교교도연맹(위원장 강영섭)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년의 날로 선포한 올해 광복절에 南北韓 教會가 「8·15회년 공동예배를 판문점」에서 드리기로 합의하였음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3. 29</p> <p>8·15 民族統一 大祝典 北側準 備委 對南便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統一大祝典 관련 民間級 接觸提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에따라 양측은 협상을 일시중지하기로 하고 다음 협상은 4월 중순에 베를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음.</li> <li>○ 우리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, 문제해결은 대화 상대방의 진지한 자세에 전적으로 달려있음.</li> </ul> <p>*대상자 : 이회창, 신창균, 이영희, 이우정, 최지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이 마련되면 90년대 통일을 위한 길에서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임.</li> <li>○ 8·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월중에 제3국에서 접촉할 것을 제의함.</li> </ul>
<p>1995. 3. 30</p> <p>8·15 民族統一 大祝典 북측준 비위 對南便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統一大祝典 關聯 民間級 接觸提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*대상자 : 김상현, 이현재, 백낙청, 박용길, 박형규</li> <li>○ 北과 南, 海外가 다같이 참가하는 조국해방 50돐 경축 민족 통일대축전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통일의 길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게 될 것임.</li> <li>○ 남조선 여러인사들과 8·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월중에 제3국에서 접촉할 것을 제의함.</li> </ul>
<p>1995. 4. 1</p> <p>南北基督教人 共 同發表文 채택</p> <p>* 제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·15 南北韓 共同禮拜 板門店 개최 合意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선기독교도연맹·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의 날로 올해 광복절에 북남의 교회가 「8·15 희년 공동 예배를 판문점」에서 갖기로 하였음.</li> <li>○ 8·15공동예배에는 해외의 다른 교단들도 참가할 수 있으며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(일본 교토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板門店 공동예배에는 해외의 다른 교단들도 참가하도록 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장소에서 兩側실무대표들이 준비회의를 가질 것임.</li> </ul>
<p>1995. 4. 6</p> <p>孔魯明 外務部長官 國會 統一外務委 發言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韓國型 안되면 對北輕水爐 지원 不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는 韓國型이 배제되고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對北경수로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.</li> <li>○ 4.21까지 협정체결이 안된다고 해서 북한이 5MW 원자로 재장전등 핵동결 의무를 파기한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對北制裁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임.</li> </ul>
<p>1995. 4. 8</p> <p>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發言</p> <p>*울진 3호기 원자로 설치 격려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진 原子爐 對北公開 容의표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韓은 오직 南北對話를 통해 동족인 우리가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.</li> <li>○ 정부는 북한측에게 이곳 울진의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참관할 것을 許容할 용의가 있음.</li> <li>○ 北韓은 이제 한국표준형 경수를 받아들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인지, 아니면 한국의 中心的 役割을 계속 거부해 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選擇해야 할 때가 되었음.</li> </ul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(일본 교토)</p> <p>1995. 4. 1</p> <p>8·15 民族統一 大祝典 北側準 備委 代辯人 談話</p>	<p>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장소에서 쌍방의 실무대표들이 준비회의를 갖도록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韓 政黨·團體들에 接觸提議 呼應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는 조국해방 50돐 경축 民族統一大祝典을 성과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3.7 정당·단체대표들로 민족통일대축전 北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전 준비사업을 다그치고 있음.</li> <li>○ 민족통일대축전을 거례의 염원에 맞게 개최하자면 北과 南의 정당·단체 및 각계인사들이 사상과 이념,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오직 民族愛와 自主의 이념을 가지고 서로 접촉하고 협의하여야 함.</li> <li>○ 우리는 남조선의 정당·단체들이 우리의 민족통일대축전 제의에 호응하여 쌍무적 및 다무적 접촉의 길에 나설 것을 기대함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4. 14 統一院 代辯人 發表文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不法訪北 安浩相 사법처리 방침 표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側 발표에 의하면 安浩相 일행은 단군릉을 돌아보고 어천절 기념제를 가졌다고 하나 당초 방문 예정지인 구월산 방문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.</li> <li>○ 政府는 이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귀환하는 대로 訪北경위와 방북시 활동내용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처리할 것임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4. 13 노동新聞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平和協定 우선해결 對美促求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國이 베를린 경수로 협상에서 저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朝美合意文을 파기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전면대결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음.</li> <li>○ 朝美合意가 제대로 이행되자면 우선 그에 맞는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하며, 이를 위해 우리와 미국사이에 적대관계부터 해소 시켜야 함.</li> <li>○ 美國이 합의문 이행을 원한다면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합의문 이행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.</li> </ul>
<p>1995. 4. 14 天道教 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訪北 安浩相 4.16 板門店 경유 歸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행은 건강한 몸으로 방문일정을 뜻깊게 보내고 있으며,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오는 4.16 11:30에 판문점을 거쳐 귀환하게 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4. 17 中放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韓美合同軍事 훈련은 합의문 違反主張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국과 남조선이 4월말부터 5월중순까지 북침을 위한 또한차례의 도발적인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려 하고 있음.</li> <li>○ 朝·美기본합의문 이행에 관심이 있다면 그에 장애를 조성하는 도발적인 합동군사 훈련을 벌이지 않아야 함.</li> <li>○ 우리는 범죄적인 전쟁책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선불질을 하는 자들에게는 천백배의 보복을 안길 것임.</li> </ul>
<p>1995. 4. 19 外交部 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先  평화협정, 後  경수로협상 主張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도에 의하면 4.14 美국방성은 4월말부터 5월중순까지 남조선에서 미군과 남조선 괴뢰들이 합동군사 연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4. 21</p> <p>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연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輕水爐 會談에서 南北對話는 必須 강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·北경수로 회담 결렬은 당초 제네바합의 이행의 구도가 美北간 회담 형식으로만 진행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南北韓 및 美·北韓間 회담구도로 진행되었어야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었을 것임.</li> <li>○ 제네바합의의 기본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간의 평화정착과 교류의 활성화이며, 이를 위해 南北對話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럴경우 北韓이 필요로 하는 바를 지원할 수도 있음.</li> </ul>
<p>1995. 4. 22</p> <p>外務部 代辯人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核凍結 해제시 對北制裁 경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政府는 美·北간 협상이 심각한 膠着狀態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음.</li> <li>○ 政府는 4.21이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목표일자에 불과하다고 보며 따라서 北韓이 스스로 설정한 시한에 구애되어 核동결을 해제할 경우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고려,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계속 임하기를 촉구함.</li> <li>○ 韓美양국은 북한이 核동결을 유지하는 한 언제든지 協商문호는 열려 있음을 闡明함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4. 21</p> <p>「平祝」준비위 事務局長 김관 철 對南便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汎民聯」南側本部 의장등 訪北招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國이 새로운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가는 미국의 위협한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응당한 대응조치를 고려치 않을 수 없음.</li> <li>○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는 朝美間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우며 美軍을 철수시키는 것이 급선무임.</li> <li>○ 경수로 제공을 비롯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도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여하에 따라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.</li> </ul> <p>○ 나는 평양축전 준비위를 대표해서 汎民聯 남측본부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단체 인사들을 명예손님으로 초청함.</p> <p>○ 일행의 평양방문은 판문점을 경유해도 좋고 제3국을 거쳐도 무방할 것임.</p>
<p>1995. 4. 22</p> <p>美·北 경수로 회담 北側團長 김정우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·北 경수로 회담 결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위기에 빠진 경수로 문제의 타결을 위해 획기적 제안을 내놓으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음.</li> <li>○ 그러나 미국측은 있지도 않은 남조선형 경수로를 계속 강요함으로써 협상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그 책임은 美國側에 있음.</li> </ul>
<p>1995. 4. 22</p> <p>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國側의 高位級會談 제의 檢討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國이 부당하게도 있지도 않은 남조선형 경수로를 마지막까지 내려먹이려 한 것으로 해서 협상은 끝내 아무런 합의도 이룩될 수 없었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4. 27</p> <p>國防部 對北 警告文 발송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休戰線에서의 停戰協定違反 對北警告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韓이 최근 휴전선 18개 지역에서 40여차례 정찰활동을 펼치면서 두차례나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나 我軍은 美北핵협상과 南北對話 등을 고려 즉각 대응을 자제해 왔음.</li> <li>○ 北韓軍의 최근 남측지역 침범과 관련 停戰協定違反이 재발될 경우 北韓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對北警告文을 유엔사를 통해 北側에 발송했음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4. 26</p> <p>國家環境保護委員會 대변인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DMZ 管轄權은 美·北韓만 가능 주장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베를린 경수로 제공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 美 국무성 순회대사 갈루치는 우리에게 5월 첫주에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을 하자고 제기했음.</li> <li>○ 우리는 정부급에서 美國측의 진의를 더 알아본데 기초하여 필요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게 될 것임.</li> <li>○ 우리가 앞으로 취하게 될 대책은 우리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임.</li> </ul>
<p>1995. 4. 27</p> <p>勞動新聞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輕水爐 協商결렬 美國側에 責任轉嫁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國이 있지도 않는 남조선형 경수로를 고집하며 우리에게 부담한 요구사항들을 강요하여 나선것은 核問題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을 끼고 우리를 압살하자는 것임.</li> <li>○ 美國이 그 무슨 제재설을 내들리면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이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고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수 없음.</li> <li>○ 우리는 자기의 이익과 자주권이 사소하게나마 침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자적인 결심과 응당한 자주적 권리에 따라 강한 자위적 대응조치로 맞설 것임.</li> <li>○ 美國이 우리에게 정치협상을 제기해 왔는데 우리는 그 진의를 알아보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5. 2</p> <p>外務部 當局者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輕水爐 『韓國型』 固守 闡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韓이 미국의 高位級會談 제의에 先제조건없이 同意(5.1)해 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 회담개최시기, 장소에 관해서는 미·북한간 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.</li> <li>○ 정부는 동 회담에서도 對北경수로 제공에 있어서 『한국형』과 우리의 『중심적 역할』 입장을 固守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5. 3</p> <p>宋月珠  조계종 총무원장 記者 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佛敎人  접촉 對北提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韓의 조선불교도 연맹이 오는 8.15 판문점에서 『조국통일기원』 合同法會를 갖자고 提議해 왔음.</li> <li>○ 오는 5.23일 北京駐在 北韓大使館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명칭·참가대상 등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을 제의함.</li> </ul>
<p>1995. 5. 4</p> <p>統一院 代辯人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北韓의 中監委事務室 閉鎖는 停戰協定 違反行爲  경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側의 5.3 中監委사무실 폐쇄조치는 現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보장체계를 美·北간 교섭해 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임.</li> <li>○ 남북간에는 이미 기본합의서 제5조에 現軍事停戰協定을 준수기로 合意하였음.</li> <li>○ 따라서 南北當事者간의  협의를 통해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정전협정 위배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정전협정 무효화 策동을  즉각 중지해야 함.</li> </ul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5. 3</p> <p>朝鮮人民軍 板 門店 대표부 聲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板門店 中監委事務室 閉鎖措置</p> <p>○ 조선인민군 板門店대표부는 美國側이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체 계 수립제안에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.</p> <p>i) 판문점 중감위사무실과 휴게실, 오락실을 완전히 廢鎖함.</p> <p>ii) 美軍側 성원들과 기자들, 중감위 성원들이 허가없이 판문 점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일체 금 지함.</p> <p>iii) 美國側이 비무장지대 남측지대에서 남조선의 무력증강과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면 우리도 그에 대응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와 관련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임.</p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5. 11</p> <p>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記者懇談會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輕水爐『韓國型』『中心的 役割』固守聲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KEDO에 의해 제공되는 경수로는 韓國型을 의미하며, 참조발전소로 올진 3·4호기가 명시되고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主契約者로 되어야 함.</li> <li>○ 북한이 한국형을 받아들인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명칭을 양보할 수는 없으나,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된다면 표현법은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임.</li> <li>○ 평화협정문제는 南北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美·北 고위급회담서 다를 사안이 아님.</li> </ul>
<p>1995. 5. 15</p> <p>金泳三 大統領 演說</p> <p>* 국제언론인협회(IPI) 제44차 총회 개최식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北韓에 穀物, 原料, 物資提供 用意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지막 냉전지역인 한반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『정보의 단절』이 반세기나 지속되고 있고, 수백만 南北離散家族은 생사조차 알지 못하며 편지 한장, 전화 한통 주고받을 수 없음.</li> <li>○ 北韓 주민은 외부세계와의 철저한 차단속에서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통제와 억압의 삶을 살고 있음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5. 11</p> <p>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·北 고위급회담 再開關聯 立場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는 美國側의 立場을 고려하여 회담에 응하기로 했으며, 현재 쌍방은 회담장소와 시일문제에 대해 討議중에 있음.</li> <li>○ 우리는 앞으로 열리게될 회담에서 朝美基本合意文 이행에 관한 美國측의 의지를 『최종적』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며 경수로형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.</li> <li>○ 미국측이 어떤 태도로 회담에 임하는가에 따라 회담결과가 좌우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.</li> <li>○ 우리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서만 『잠정적』으로 核凍結을 더 유지하게 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5. 12</p> <p>外交部 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平和保障體系 樹立을 위한 必要措置 強行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국이 국무성대변인과 유엔군사령부 대변인을 내세워 마치 우리가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있으며, 자기들은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당사자가 아닌 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우리의 조치를 걷고 든 것은 어이없고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.</li> <li>○ 현시기 조선반도에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보다 더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없으며 우리는 미국이 바라든 바라지않든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을 재확인함.</li> <li>○ 미국이 우리의 평화보장체계수립 제안을 무시하고 남조선과 함께 비무장지대에서 무력증강과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응조치가 있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함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5. 21</p> <p>國防部 代辯人 발표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한주민의 人權問題는 국제인권협회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.</li> <li>○ 북한체제의 안정과 질서있는 변화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며,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비롯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히는 바임.</li> <li>○ 우리는 南과 北이 함께 번영하는 한민족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, 北韓核問題에도 불구하고 對北經濟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부담기로 한 것도 이런 취지임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유엔사, 對北 將星級接觸 提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난 5.19 판문점 일직장교 접촉을 통해 『장성급 접촉』을 5.23 軍停委 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유엔사 스미스 소장의 書翰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음.</li> </ul>
<p>1995. 5. 25</p> <p>(유엔사 관계관 확인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北側의 단독 將星級接觸 提議拒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UN사측은 판문점 일직장교접촉을 통해 단독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였음.</li> </ul>
<p>1995. 5. 26</p> <p>羅雄培 副總理 겸 統一院長官 發表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穀物 支援關聯 쌍방 當局代表 接觸提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없이 北側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提供할 用意가 있음.</li> <li>○ 제공할 곡물의 종류, 수량, 인도장소, 인도시기, 수송 및 운반 수단 등 절차문제에 대해 南北間에 協議하기를 희망함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5. 24 (*5.25 한국 국 방부 확인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·北 단독 將星級接觸 逆提議</p> <p>○ 北韓側은 관문점 일직장교접촉을 통해 UN사측 제안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이찬복 중장과 UN사 스미스 소장이 5.25 만날 것을 提議하였음.</p>

■ 1995年 5月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	○ 이 문제를 協議하기 위해 쌍방 당국 대표들이 北側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만날 것을 提議함.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5. 27</p> <p>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韓國型』名稱拒否, 輕水爐 生産地 不問 立場 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부 언론들이 남조선형 경수로를 우리측이 아예 통제로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잘모르는데서 출발한 억측에 지나지 않음.</li> <li>○ 우리는 첫시기부터 어느 나라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한 제품인가 하는 문제를 중시해오는 것이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는데는 별로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음.</li> <li>○ 문제는 美國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한 경수로에 남의 이름을 따라 우리에게 提供하겠다고 固執하는데 있음.</li> </ul>
<p>1995. 5. 29</p> <p>外交部長 김영 남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韓國型』輕水爐 拒否 再確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는 경수호가 어느 나라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하여 제작된 제품인가에 관심을 돌리고 있을 뿐이며, 경수호가 어디서 제작되었는가는 개의치 않음.</li> <li>○ 남조선은 미국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하여 제작된 경수로를 저들의 이름을 붙여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으며,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입장을 반대하고 있음.</li> <li>○ 남조선제 경수로라는 것은 없을 뿐 아니라 그림자 조차 찾아보기 어려움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5. 31</p> <p>姜英勳 「韓赤」 總裁 對北 放送 通知文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被拉 『86 우성호』 및 乘船漁夫 送還要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당국에 의하면 5.30 하오 12:50경 백령도 북서방 25마일 지점 해상에서 우리측 민간어선 『86우성호』가 귀측의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었다고 함.</li> <li>○ 이번 사건은 선장 김부곤 외 7명의 어부들이 중국 산둥성 영성항에서 인천항으로 귀환하는 도중 항로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.</li> <li>○ 귀 赤十字會가 적십자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『86 우성호』와 그 승선어부들이 즉각 送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.</li> </ul>
<p>1995. 6. 6</p> <p>宋榮大 統一院 次官 發表文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穀物提供 관련 北韓側의  직접호응 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는 일본 정당측으로부터 북한이 한국의 쌀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해 받았으나, 오늘 현재까지 북한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직접 받지 못했음.</li> <li>○ 어떠한 정치적 조건없이 쌀과 다른 식량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함.</li> <li>○ 우리는 쌀제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에게 절차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『당국자접촉』을 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측이 직접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오기를 바람.</li> </ul>
<p>1995. 6. 7</p> <p>외무부 대변인 논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·北會談의 『원칙적 합의』 否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·北 준고위급회담 『發表文案』에 대해서는 韓·美·日 3국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따라서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.</li> <li>○ 북한측 외교부 발표와 달리 현재 美·北 양측이 회담전체 윤곽에 합의하였거나, 어떻게 표현하느냐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님.</li> </ul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6. 7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·北 準高位級 會談에서 『原則的 合意達成』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6.6 오후 쿨라룸푸르 회담에서는 드디어 경수로형 선정, 계약체결방식, 미국의 책임문제, 부지정리, 비용부담문제 등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룩되었음.</li> <li>○ 우리는 대화 상대방이 이미 합의된 원칙들을 존중하는 한 朝美 會談은 곧 결속될 것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6. 8</p> <p>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발표문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穀物支援 관련 日本側에 신중대처 촉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 정부는 쌍방 당국자 접촉을 제의하고 북한측이 직접 통보 해줄 것을 촉구하였으며, 현재 北韓으로부터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음.</li> <li>○ 이러한 상황에서 日本이 곡물을 북한에 먼저 제공할 경우,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韓·日關係에 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.</li> <li>○ 南北 당국사이의 직접 접촉에 의해 우리의 對北穀物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측이 신중히 대처해 주기를 강력히 요망함.</li> </ul>
<p>1995. 6. 13</p> <p>姜英勳 「韓赤」 總裁 對北 放送 通知文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 赤十字連絡官 接觸提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난 5.31 귀하에게 『제86호 우성호』와 그 선원들이 즉각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.</li> <li>○ 그 선원들이 순수 민간인임을 알 수 있는 신상자료와 가족들의 호소문 전달을 위해 6.15, 10:00 板門店 中監委員會실에 2명의 赤十字 連絡官을 내보낼 것이니 귀측의 상응한 조치를 기대함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6. 8 平壤放送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對話再開 拒否立場 再確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김○○일당에게는 北南對話를 재개할 의사도 없거니와 대화에 대해 말할 체면도 자격도 없음.</li> <li>○ 지난 3월 동족의 유고와 관련하여 감행한 반민족적 야만행위를 다시금 정당화해 나선 것은 공공연한 反統一 대결선언임.</li> <li>○ 역사와 민족앞에 만고대죄를 저지른 범죄자들과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, 통일을 위한 신성한 대화마당에 절대로 마주 앉을 수 없음.</li> </ul>
<p>1995. 6. 10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·北會談 지연때 폐연료봉 再處理 警告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폐연료봉 보관문제는 반드시 경수로 제공문제의 진전과 병행해 해결되어야 할 성격의 문제임.</li> <li>○ 지금 계절변화로 말미암아 폐연료의 부식작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전망을 가늠할 수 없는 會談에 발목만 묶여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음.</li> <li>○ 朝美會談이 지연되는 것으로 하여 우리가 폐연료봉과 관련하여 취하려는 조치는 부득이하고 당연한 것으로 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6. 13 美·北 準高位 級會談 (5. 19~6. 12 콜라뽀푸르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·北 「공동보도문」 發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KEDO는 미국 주도하에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사업의 재정 조달 및 공급을 담당함.</li> <li>○ 경수로사업은 각각 2개의 냉각제 유로를 가진 1천 MWe 경수로 2기로 구성되며, KEDO선정 노형은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되어 현재 생산중인 개량형으로 함.</li> <li>○ KEDO는 경수로사업 주계약자를 선정하며, 부지조사와 부지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수로 공급범위에 포함됨.</li> <li>○ 쌍방은 중유의 단계적 공급문제와 폐연료봉의 안전보관문제를 협의, 실천하기 위하여 6월중에 북한에서 접촉기로 하였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1995. 6. 13 尹汝雋 青瓦臺 代辯人 發表文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 클린턴 大統領, 對北輕水爐 『韓國型』, 『韓國의 中心的 役割』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클린턴 美대통령은 오늘 팔라룸푸르 경수로 회담관련 金泳三大統領에게 친서를 보내왔음.</li> <li>○ 클린턴 대통령은 친서에서 對北輕水爐 제공은 『한국형』이 될 것이며 『참조발전소』는 울진 3·4호기임을 확인하였음.</li> <li>○ 『主契約者』는 한국회사로서 설계, 제작, 시공, 사업관리, 경수로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음.</li> </ul>
1995. 6. 13 外務部 聲明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輕水爐 『韓國型』, 『韓國의 中心的 役割』 貫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번 미·북합의는 대북경수로 사업진행을 위한 기본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지지함.</li> <li>○ 우리 정부의 2대 원칙인 『한국형 경수로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』이 관철되었음.</li> <li>○ KEDO와 북한간 경수로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궁극적으로 북한핵문제의 완전 解決을 기대함.</li> <li>○ 경수로 사업의 이행관련 南北對話의 조속 재개가 필수불가결하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함.</li> </ul>
1995. 6. 15 姜英勳 「韓赤」 總裁 對北聲明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제86 우성호』 및 船員 早速送還 거듭 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韓側이 5.30 나포한 『제86 우성호』는 민간어선으로서 赤十字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의 입장에서 지체없이 送還되어야 함.</li> <li>○ 나포과정에서 발생된 사상자의 신원통보와 시신을 가족들에게 즉시 인도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임.</li> <li>○ 北韓側은 오늘 판문점에서 전달하려했던 선원들의 신상자료와 가족들의 호소문 접수마저 거부하였음.</li> <li>○ 피납선원들이 순수민간인임을 알 수 있는 신상자료와 호소문을 공개하면서 北韓赤十字會側의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함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6. 13</p> <p>美·北會談 北側團長 김계관 記者會見 (팔라룸푸르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輕水爐『韓國型』, 『韓國의 中心的 役割』 거들 否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朝美 쌍방은 경수로 제공에서 심각한 논점들을 討議하고 合意 하였음.</li> <li>○ 경수로형의 선택권은 우리가 가지며 朝美사이에 결정할 문제임.</li> <li>○ 『韓國型』이란 존재하지 않으며, 경수로형은 미국설계와 기술의 개량형으로 합의하였음.</li> <li>○ 朝·美合意에서 중요한 것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임.</li> </ul>
<p>1995. 6. 15</p> <p>外交部 代辯人 談話 發表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輕水爐『韓國型』 거들 否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에게 제공될 경수로는 미국설계와 기술의 개량형이라고 명기 된 것으로 하여 『한국형』이란 실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.</li> <li>○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 KEDO가 『주계약자』를 선정한다 해도 미국의 의지를 따르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는 대상이 될 것 임.</li> <li>○ 미국이 KEDO를 어떻게 운영하든 관여치 않을 것이며, 우리는 KEDO를 대표하는 美國을 『기본상대자』로 대할 것임.</li> <li>○ 우리는 지금까지대로 동결 의무만 이행하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는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행동 여하에 달려있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6. 21 제1차 北京會談 (’95. 6.17~ 비공개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쌀제공 관련 『合意』 事項</p> <p>① 북한측에 1차로 쌀 15만t을 인도하며, 이 1차분은 전량 무상으로 제공함.</p> <p>② 합의를 서명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첫선박을 출항시키며, 남측 선박으로 해상을 통해 청진, 나진항 등에 인도함.</p> <p>③ 북한측에 1차분으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kg단위 PP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기를 하지 않음.</p> <p>④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南側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측에서는 조선삼천리총회사로 함.</p> <p>⑤ 南과 北은 쌀 인도·인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함.</p> <p>⑥ 南과 北은 ’95.7월 중순에 제2차 회담을 개최함.</p> <p>⑦ 合意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 협의하여 해결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 李錫采 재정경제원차관-북한정무원 산하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고문 全琴哲 서명</p>
<p>1995. 6. 25 南·北韓, 비공개 실무접촉 『契約書』 채택 (6.23~, 북경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쌀제공 15만t 全量 8.10 이내 提供</p> <p>○ 계약과 동시에 첫선박을 출항시키되, 對北쌀제공 15만t 전량을 오는 8.10 이전까지 北側에 제공기로 함.</p> <p>○ 쌀의 품질은 습도 1.5% 이하, 파쇄율 5%이하 등 국내 농산물 검사 규격에 준함.</p> <p>○ 수송은 5천톤급 이상의 南側船舶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제3국 선박을 이용할 수 있음.</p> <p>○ 우리측은 출항 5일전에 선박의 제원, 선원명단, 쌀의 품질 및 수량 등을 北京駐在 북한대사관에 통보함.</p>
<p>1995. 6. 29 統一院 代辯人 브리핑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시 아펙스호』 人共旗 揭揚關聯 公式謝過 없으면 쌀支援 中斷</p> <p>○ 지난 6.26 『시 아펙스호』가 북한측의 강요로 인공기를 게양하게 됨으로써, 북한측은 『북한 항구에 입항시 쌍방의 깃발을 모</p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1995. 6. 21 제1차 北京會談 ('95. 6.17~ 비공개)	※ 북측은 쌀제공 관련사항 일체 미발표
1995. 6. 25 南·北韓, 비공 개 實務接觸 『계약서』 채택 (6.23~, 북경)	※ 북측은 『합의사항』 일체 미발표
1995. 6. 29 外交部 『備忘 錄』發表	『새로운 平和保障體系』 수립 對美促求 ○ 정전체제는 복구할 수도 재생할 수도 없는 존재로 되었으며 이 제는 새로운 체계로 교체하는 길밖에 없음.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7. 3</p> <p>宋榮大 統一院 次官 發表文</p>	<p>두 달지않기로』한 北京會談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는 북경 당국간회담 당사자인 전금철 명의의 공식사과가 없는 한 추가 선적과 출항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, 이미 출항해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회항토록 지시하였음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 쌀支援 再開 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는 북한측의 회신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온 결과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, 일단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기로 하였음.</li> <li>○ 현재 중단되고 있는 對北 쌀지원을 위한 도정, 포장, 선적, 수송 등 모든 작업은 곧 再開될 예정이며, 회항한 운송선박에 대해서는 다시 출항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.</li> <li>○ 정부는 이번 對北 쌀지원이 南北간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.</li> </ul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6. 30</p> <p>對外經濟協力推進委員會 高문 전금철 對南 電文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시 아펙스호』人共旗 계양관련 公式謝過 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국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단을 내려야 함.</li> <li>○ 미국이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유엔군사령부라도 해체하여야 할 것임.</li> <li>○ 미국이 이를 외면하는 길로 나간다면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냉전의 유물을 깨끗이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하나 하나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7. 3</p> <p>外交部長 김영남,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便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駐韓 유엔司 召喚 協調要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선반도에서 낡은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세우는데서 방해로 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여기에 유엔이 개입되어 있는 것임.</li> <li>○ 유엔 성원국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유엔과 불미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임.</li> <li>○ 연합군으로 하여금 유엔 깃발을 사용토록 허용한 조건에서 그것을 내리우고 소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7. 4</p> <p>朝鮮人民軍 板門店 代表部 대표 이찬복 對 유엔司 便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·北 장성급접촉 實務接觸 결렬 非難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國측이 실무접촉을 결렬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7. 10 李洪九 國務總理 國會答辯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北韓 새指導者 등장시 南北頂上會談 期待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는 그동안 긴장완화와 상호신뢰회복, 특히 核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南北頂上會談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왔음.</li> <li>○ 北韓의 새 지도자 등장이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함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7. 11</p> <p>사회민주당 중 앙위 對南便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8·15 統一大祝典』同參 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쌍방이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음.</li> <li>○ 美國측이 끝내 반대한다면 우리도 다른 방도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음.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조선 당국자들은 그무슨 적화통일이니 내부교란이니 하는 황당한 구실로 8.15 민족통일대축전으로 향하는 남조선의 정당·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음.</li> <li>○ 이념이 다르고 주의주장이 같지 않다고 하여 대축전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투쟁에서 발걸음을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.</li> <li>○ 남조선의 民主黨이 北과 南, 海外의 광범한 통일애국역량과 보조를 같이함으로써 8.15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.</li> </ul>
<p>1995. 7. 14</p> <p>『祖平統』 書記 局 代辯人 記者 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쌀제공 관련 『불순한 목적추구』 비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얼마되지도 않는 쌀을 제공하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바치는 것처럼 생색을 낼 필요는 없음.</li> <li>○ 우리측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주겠다고 하고 제공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나는 행동임.</li> <li>○ 우리는 쌀문제를 등대고 다른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수수방관할 수 없음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7. 18</p> <p>제2차 北京會談 (’95. 7.15~ 비공개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우리측의 『發表文』 內容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2차 회의에서 쌀 追加支援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음.</li> <li>2. 우성호문제에 대해 北側은 관계당국의 조사절차가 끝나는대로 가능한 한 빨리 송환하기로 약속하였음.</li> <li>3. 쌀 제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.</li> <li>4. 제3차 당국간 회의는 8.10 개최하되 장소는 우선 잠정적으로 北京으로 하기로 하였으며, 회의에서는 쌀문제와 南北간 경협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음.</li> </ol>
<p>1995. 7. 19</p> <p>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演說</p> <p>* 도산아카데미 연구원 주최 세미나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接觸』을 통한 對北政策 積極推進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현가능하고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, 북한에 대해 『接觸을 통한 변화』를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함.</li> <li>○ 北韓이 안정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南北關係 改善에 도움이 되고 화해·협력으로 나가는 첩경이 될 것임.</li> <li>○ 北韓에 대한 추가적인 쌀지원 협의는 남북관계 개선, 국내 쌀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.</li> </ul>
<p>1995. 7. 19</p> <p>李錫采 財政經 濟院 次官 記者 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차 北京會談 協議內容 일부공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국자간 승인을 전제로 경공업분야의 투자확대, 비료와 농약제공, 무연탄 제공문제 등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.</li> <li>○ 北側은 제공받은 쌀은 民生用으로 사용할 것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였음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7. 18 제2차 北京會談 (’95.7.15~ 비공개)</p>	<p>○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처럼 불필요한 言動을 계속하며 우리를 자극한다면 그들에게 결코 좋은 결과가 차례지지 않을 것임.</p> <p>※ 북측은 일체 미보도</p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7. 20</p> <p>유엔司 對北 便紙</p>	<p>○ 對南 비방중상 중지에 대해 北側은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·北 將星級接觸 拒否</p> <p>○ UN司 스미스 소장 명의로 北韓 이찬복 중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『美·北간 군사접촉은 軍정위 틀내에서만 가능하며 직접적인 접촉은 응할 수 없다』는 입장을 전달하였음.</p>
<p>1995. 7. 21</p> <p>統一院 代辯人 브리핑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.15 『板門店 紀念行事』 不許</p> <p>○ 정부는 5.16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지침에 맞지 않으므로 『8.15 민족공동행사』 南側準備委의 판문점 기념행사를 위한 접촉 신청을 不許했음.</p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7. 21</p> <p>統一大祝典 北 側準備委 부위 원장 백남준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·北·海外 準備委 『共同合意文』 발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민족통일대축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민족준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.</li> <li>2. 민족통일대축전은 95.8.12~17까지 진행하며, 北·南·海外가 함께하는 공동행사는 8.15에 함.</li> <li>3. 3자 공동행사는 판문점에서 하며 그밖의 행사들은 北·南·海外가 각기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측 지역에서 진행함.</li> <li>4. 민족통일대축전의 명칭은 행사의 계기와 거족적 성격, 통일지향의 뜻을 담아 각지역 실정에 맞게 정함.</li> <li>5. 공동행사로는 개·폐막식, 통일음악회와 사진 및 미술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와 단체별·부문별 행사로 하며, 이와함께 공동행사의 하나로 대민족회의 또는 통일대토론회를 가짐.</li> <li>6. 南側준비위원회에 汎民聯 남측본부를 참가시킴.</li> </ol>
<p>1995. 7. 23</p> <p>統一大祝典 北 側準備委 聲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側의 板門店 共同行事 不許 非難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열주의적 흥심을 다시한번 드러내놓은 것으로서 용납못할 반민족적, 반통일적 파쇼폭거임.</li> <li>○ 김○○일당이 민족통일대축전을 가로막아 나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임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자들은 대축전행사의 어느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느 것이 어떻게 법에 위반되는지 똑똑히 밝혀야 함.</li> <li>○ 北과 南, 海外를 망라한 민족준비위원회가 발족된 이상 판문점 통일대축전은 반드시 성황리에 개최될 것임.</li> </ul>

■ 1995年 7月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7. 28</p> <p>『祖平統』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승운 목사 義舉入北 主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조선 통치배들이 안승운의 의거를 납치니 뭐니하고 우리 共和國을 모해하려고 책동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궤변임.</li> <li>○ 우리는 남조선 괴뢰들의 불순한 책동을 경각성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음.</li> <li>○ 우리는 남조선 괴뢰들의 反共和國 모략책동을 절대로 수수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모해하면 할수록 보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임.</li> </ul>
<p>1995. 7. 29</p> <p>『祖平統』등 7개 단체 聯合 聲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朴容吉 歸還關聯 對南威脅 非難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박용길 여사(6.28~7.31 밀입북)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곧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전으로 됨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자들이 대화 일방에게 감히 악행으로 도전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北南關係를 보다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몰아갈 것임.</li> <li>○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박용길 여사를 체포 구속한다면 백배 천배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임.</li> </ul>
<p>1995. 8. 1</p> <p>外交部 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對話 재개 거들 拒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북남관계 진전과 朝·美관계 진전에 보조를 맞추기로 하는 한편 우리에게 핵합의를 이행하도록 촉구했음.</li> <li>○ 이는 核問題와 朝·美간의 관계해결에 관한 기본합의문 이행에 새로운 전제조건을 제기하는 하나의 시도임.</li> <li>○ 미국이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北南對話 재개와 미군유골 반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.</li> <li>○ 朝·美關係가 진전되면 北南關係도 자연히 진전될 것임.</li> <li>○ 조선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는 朝美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주한미군 철수에 달려 있으며 이 문제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8. 8 統一院 代辯人 브리핑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차 北京會談에서 經協問題·우성호 送還問題 논의강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3차 회담에서는 對北 쌀지원 문제를 비롯, 경제협력문제와 우성호 송환문제 등 기타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임.</li> <li>○ 우리측은 15만t의 대북 쌀지원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한다는 정부 방침을 설명할 것임.</li> <li>○ 우성호 송환 등 南北사이의 현안문제들이 북한측의 상응조치로써 하루빨리 해소되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8. 9 統一院 次官 發表演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抑留 『삼선 비너스호』早速 送還 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는 8.2 청진항에 입항한 『삼선 비너스』호의 1등항해사 李良天씨가 8.2 12시 카메라로 청진항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필름을 빼앗기고 북한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음.</li> <li>○ 北韓측은 계획적인 정탐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政府는 현지 점에서 사실 확인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북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임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8. 3</p> <p>『祖平統』代辯 人 聲 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는 朝·美간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. (* 7. 27 워싱턴, 韓美頂上會談 關聯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不法訪北 朴容吉 拘束 非難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朴여사에게 탄압과 박해를 가하는 것은 일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共和國과 직접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임.</li> <li>○ 우리와의 對話를 운운하면서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찾아왔던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부치는 것도 자가당착적인 행위임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자들은 朴장로를 우리와 연결시켜 체포·구속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대화를 전면 부정하고 대화에 대해 말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음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자들은 朴여사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며 무조건 석방해야 함.</li> </ul>
<p>1995. 8. 9</p> <p>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성명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統一大祝典 참가 南側·海外代表 身邊安全 保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판문점 지역에 오는 남측과 해외 대표들을 동포애의 심정으로 따뜻이 맞이할 것이며 그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할 것임.</li> <li>○ 통일대축전행사를 성과적으로 치르는데 필요한 모든 편의를 보장할 것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8. 9</p> <p>李錫采 財政經濟院 次官 對北 電文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韓측은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장에 따라 우리 선박과 선원을 조속히 돌려보내야 할 것임.</li> <li>○ 정부는 李良天씨 문제 해결을 위한 南北대표간 접촉을 제의할 것이며, 필요할 경우 외교적인 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.</li> <li>○ 정부는 이미 합의된대로 北韓에 쌀을 지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,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나머지 쌀지원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임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쌀수송선 抑留關聯 南北代表接觸 提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합의사항 이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제3차 北京會談마저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.</li> <li>○ 우리는 쌀수송을 위해 귀측에 간 선박과 선원 전원이 귀측 당국이 보장한 신변안전보장각서에 따라 지체없이 되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함.</li> <li>○ 쌀수송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대표단 사이에 협의해결키로 한 제1차 북경회담 합의사항 제7항에 입각하여, 이 문제의 協議를 위해 南北대표간에 즉각 만날 것을 提議함.</li> <li>○ 이를 위해 우리측은 8.10 대표 1명을 북경에 내보낼 것임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8. 10 『祖平統』 서기 국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朴容吉 구속 對南 非難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박용길에게 가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탄압과 박해를 인륜 도덕을 무참히 짓밟는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로,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로 준렬히 규탄함.</li> <li>○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탄압하고 처형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 스스로가 우리와의 對話를 부정하는 것임.</li> <li>○ 국가보안법을 北에 왔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와 對話를 하려는 의사도, 하려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8. 12 姜英勳 「韓赤」 총재 對北聲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赤十字會談 早速再開 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韓적십자회측이 南北적십자간의 접촉과 대화를 다시 여는데 호응해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.</li> <li>○ 南北의 적십자인들은 이제라도 남북이산가족들이 서로 안부소식을 교환하고 상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임.</li> <li>○ 작년 8.12 남북적십자 쌍방의 총재 또는 부총재가 板門店에서 만날 것을 제의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北韓적십자회측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함.</li> <li>○ 우리측 어선 제86우성호 선원들을 포함한 400여명의 拉北者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북한적십자회측이 인도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요청함.</li> </ul>
<p>1995. 8. 12 李錫采 財政經濟 院次官 對北電文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삼선 비너스호』 抑留관련 遺憾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임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8. 11</p> <p>北韓 政府, 備 忘錄 발표</p>	<p>○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용길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임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高麗聯邦制 發表 15돌즈음 備忘錄</p> <p>○ 지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인 남조선의 國家保安法은 지체없이 철폐되어야 함.</p> <p>○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진정한 통일 의사가 있다면 콘크리트 장벽을 무너뜨리는 실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함.</p> <p>○ 北과 南은 1991년 北南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평화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, 앞으로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北南대화가 재개되면 이미 세워진 제도적 장치가 가동될 수 있음.</p> <p>○ 이를 위해서는 응당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이 정전체제를 平和保障體系로 바꾸는 문제를 담당해야 함.</p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1차 북경회담에서 합의된 쌀 협력사업은 계속적으로 이행될 것임</li> <li>○ 李良天 1등 항해사를 포함한 선원전원과 선박을 조속히 돌려보내 주기 바람</li> </ul>
<p>1995. 8. 15</p> <p>金泳三 大統領 8. 15 光復節 경축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韓半島 平和定着 基本原則 提示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족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함.</li> <li>○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드시 南北당사자간에 협의·해결되어야 함.</li> <li>○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함.</li> </ul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8. 13</p> <p>中央通信社 報道文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抑留『삼선 비너스호』送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번 적대 행위는 어느 개인의 실책에 의하여 빚어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남조선 당국의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도발행위임.</li> <li>○ 그럼에도 우리가 취한 관용은 깊은 동족애와 인도주의 입장에서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北南사이의 신뢰를 도모하고 화해를 바라는 우리의 대범한 입장의 증거임.</li> </ul>
<p>1995. 8. 14</p> <p>外交部 代辯人 기자회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南側의 對北平和協定 제의설 비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조선 당국자들이 8.15를 계기로 北과 南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들이 담보하는 『2+4』요 『2+2』요 하는 평화구축안이란 것을 내놓을 것이라고 함.</li> <li>○ 이것은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보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런 것을 들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침을 확약한 北南합의서를 집어던지는 것으로 됨.</li> <li>○ 우리와 미국사이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게 되면 조선반도 정세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게 될 것이며 南北합의서의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8. 15</p> <p>北韓 大民族會議, 『呼訴文』 採擇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聯邦制를 民族共同의 統一方途로 確定하자고 主張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민족회의에서는 연방제방식에 의한 통일이 우리 민족 공동의 통일방도로 된다고 일치하게 확인하였음.</li> <li>○ 대민족회의에서는 연방제통일론에 배치되는 제도통일론을 한결 같이 반대하고 배격하였음.</li> <li>○ 대민족회의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8. 19</p> <p>政府合同調査班 調査結果 發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南北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함.</li> <li>○ 南과 北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함.</li> <li>○ 북한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고 남북간에도 신뢰가 존중되기를 기대함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삼선 비너스호』 抑留事件은 북한의 政治的 利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번 사건은 1등항해사 李良天(33)씨가 개인적 호기심에 따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진촬영을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빚어진 것임.</li> </ul>
<p>1995. 9. 5</p> <p>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記者懇談會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차 北京會談 9. 27 開催 發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3차 회담을 9. 27 북경에서 갖기로 南北韓이 합의하였음.</li> <li>○ 의제는 대체로 南北經協 문제를 다룰 생각이나 현안문제로서 우성호 송환문제, 안승운 목사 사건, 비방중지 문제와 김용순 발언건 등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생각임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8. 23                      勞動新聞 論評</p>	<p>하는 것이 연방제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일치하게 인정 하였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민족회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장애로 되는 법적·제도적 장치의 철폐가 연방제 통일의 기본열쇠로 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였음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金泳三 大統領의 『平和定着 基本原則』 비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조선 괴뢰들은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식민지 꼭두각시 집단으로서 거기에 끼어들 하등의 자격도 없음.</li> <li>○ 北南당사자간 해결을 떠들던 그 입으로 관련국의 협조와 뒷받침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임.</li> <li>○ 北南합의서 존중과 신뢰구축이니 하는 소리는 北南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北南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궤변임.</li> <li>○ 美國이 군사통수권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있고 또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조건에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은 우리와 美國이 할 일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9. 7</p> <p>外務部 代辯人 聲明</p>	<p>○ 현재로서는 쌀 추가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, 水害支援問題는 北側의 피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가 있고, 또한 북측의 의사표시도 있어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임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朝 · 蘇條約 廢棄發表 歡迎</p> <p>○ 러시아 정부가 韓 · 러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냉전시대의 잔재인 구소련과 북한간 군사동맹관계를 법적으로 완전 청산하였다는 점에서 금번 러시아 정부의 러 · 北韓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 폐기조치를 평가하며 이를 환영함.</p> <p>• 러 외무부, '61년체결 朝 · 蘇 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이 우호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(9.7)</p>

北		韓	
出 處	提 議 內 容		
<p>1995. 9. 6 中央通信 報道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北韓 홍수피해 死亡 68명, 被害額 150억불 主張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부 산간지대들에서는 집중 폭우와 산사태, 저수지 파괴 등으로 68명의 사망자와 일부 실종자들, 부상자들이 났음.</li> <li>○ 큰물피해후과로 많은 살림집, 학교, 탁아소, 병원과 기타 공공 건물들, 그리고 도로, 철길, 교량, 제방, 통신, 체신, 전력, 급수망, 탄광, 광산, 공장 등 생산 및 하부시설, 농토와 산림자원, 국토의 많은 부분들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침수, 유실, 파괴, 손실되었음.</li> <li>○ 피해는 12개도 및 직할시에 있는 145개군 주민 520여만명에 달하며, 현재 초보적으로 추산한 피해액은 150억 달러임.</li> </ul>		
<p>1995. 9. 7 外交部 代辯人 담화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駐韓美軍撤收 및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樹立 促求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금까지도 정치군사적으로 대결관계에 있고 정세가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틀고 앉아 있기 때문임.</li> <li>○ 현시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이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임.</li> <li>○ 우리와 美國사이에 평화보장을 위한 법적,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되면, 北南합의서의 이행도 추동하게 될 것임.</li> </ul>		
<p>1995. 9. 8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朝·蘇 조약 폐기문제 검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는 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그 조약은 의의를 상실하고 폐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러시아측에도 밝혔으며 그후 조약에 아무런 주의도 들리지 않았음.</li> <li>○ 러시아측이 최근 새로운 친선관계의 기초에 관한 條約締結 문제를提起해 오면서 그 草案을 보내왔으며, 우리는 이를 연구하고 있음.</li> </ul>		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9. 14</p> <p>羅雄培 副總理 겸 統一院 長官 기자간담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北韓의 공식요청시 水災支援問題 검토 표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선 대한적십자사가 자체 재정으로 5만달러의 의약품, 의류, 모포 등 생필품을 적당한 통로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하기로 했음.</li> <li>○ 정부는 國內 민간차원의 구호물자지원은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음.</li> <li>○ 북한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시기와 규모, 방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 黨·政간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9. 15</p> <p>姜英勳 「韓赤」 總裁 對北 放送 通知文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 水災物資 提供 提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록 우리 국민들이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북녘 동포들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약품과 모포를 北側에 支援하기로 하였음.</li> <li>○ 大韓赤十字社는 우리 국민들이 北側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물품전달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모아 북한적십자회 앞으로 보내고자 함.</li> <li>○ 우리측의 물품을 北側에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속히 알려주기 바람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9. 20 中央通信 報道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우성호』 문제 北韓法에 따라 처리 主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박은 해상분계선으로부터 20.8해리 북쪽 해상에서 나포되었으며, 이 과정에 선박은 파손되고 일부 사상자들이 났음.</li> <li>○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측 영해에 불법침입한 86 우성호와 불법행위를 지휘한 南朝鮮 당국에 있음.</li> <li>○ 남조선 당국과 여기에 가담한 86 우성호의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됨.</li> <li>○ 86 우성호 문제는 마땅히 共和國의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9. 21</p> <p>統一院 代辯人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『우성호』船員 즉각 送還 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韓측이 우리의 순수한 민간 어선을 나포하고, 특히 그 과정에서 무고한 어부들을 살상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임.</li> <li>○ 北韓측은 이제라도 우리 선원과 선박이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.</li> </ul>
<p>1995. 9. 25</p> <p>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發言</p> <p>*국정감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支援과 拉北者 問題 連繫 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앞으로 對北지원과 북한에 억류중인 拉北者問題 등을 연계시켜 해결해 나가겠음.</li> <li>○ 북한 核問題와 함께 북한 人權問題를 국제사회와 공동해결하는 것은 내부분제 간섭이 아님.</li> <li>○ 북한의 현재 태도로 볼 때 정당대표의 訪北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임.</li> </ul>
<p>1995. 9. 28</p> <p>孔魯明 外務部 長官 유엔總會 演說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北韓 人權保障 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北韓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.</li> <li>○ 韓國정부는 북한주민이 동포로서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보편적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음.</li> </ul>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9. 25</p> <p>北韓, 拉北 우성호 선원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우성호 船員의 이른바 犯罪行爲 自白強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 죄를 저질렀던 것을 다시금 솔직히 자백하며 그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(선장 박재열)과 이남 당국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함.</li> <li>○ 지금 우리들은 이남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좋은 조건에서 불편없이 지내고 있음.</li> <li>○ 저희들의 죄과는 용납될 수 없고 마땅히 共和國의 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인정함.</li> <li>○ 사건 현장에서 항해사인 신흥광과 갑판장인 심재경이 사망하였으며, 이복에 들어와 이일용씨는 병사했음.</li> </ul>
<p>1995. 9. 27</p> <p>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北·日 修交會談 관련 實務接觸 開催確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日本 外무성은 지난 3월 조선 노동당과 일본 연립여당간 협정을 채택한 이후 몇 번이고 공화국 외교부에 접촉을 가질 것을 요청해 왔음.</li> <li>○ 회담재개를 위한 日本 입장을 받아들여 우리는 그 준비를 위한 일환으로 實務接觸 제외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음.</li> <li>○ 최근 양국 외교부간 接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일본측 요청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접촉중 하나임.</li> </ul>
<p>1995. 9. 28</p> <p>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차 輕水爐 供給協定締結 협상관련 立場表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國側이 경수로 제공과 관련한 의무이행을 태만한다면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核凍結 의무를 계속 이행할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함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* 제50차 유엔 총회</p> <p>1995. 9. 30</p> <p>제3차 北京會談 (9. 27~, 비공개)</p>	<p>○ 북한 당국은 개혁과 사회개방을 통해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함.</p> <p>○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離散家族이 궁극적으로 재결합할 때까지 최소한 서로의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우리측의 對언론 『說明資料』</p> <p>○ 우리측은 우성호 즉각송환, 비방중상 중지, 안승운씨 원상회복, 북한고위당국자의 발언 해명 등 南北協力を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.</p> <p>- 南北간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회담은 한반도내에서 개최하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쌍방 대표의 자격을 확실히 함으로써 南北對話를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하였음.</p> <p>- 對北쌀수송과정에서 돌출된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수단보장 약속의 성실한 이행, 신변 안전보장장치 강화 등 보완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.</p> <p>○ 북한측은 우성호문제는 北韓의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,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.</p> <p>- 회담장소를 한반도내로 이동하는 것은 단시일내에 결정되기 어려운 일로서 과제로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.</p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9. 30</p> <p>제3차 北京會談 (9. 27~, 비공 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KEDO측은 마땅히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하부구조 건설은 물론 공사전반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, 지난 수십 년동안 자립적 핵동력 공업 창설에 돌려진 우리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할 것임.</li> <li>○ 소유자인 우리가 장차 자기의 것으로 될 경수로 발전소가 똑똑한 것인가를 검토 확인해 보는 것은 마땅한 권리에 속하는 문제임.</li> <li>○ 만약 美國이 제 할 바를 KEDO에 넘겨놓고 경수로제공협정 체결을 지금처럼 외면하려 한다면 우리로서는 부득불 美國과 단독으로 마주앉아 정치적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음.</li> </ul> <p>※ 북측은 일체 미보도</p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9. 30</p> <p>李錫采 北京會 談 수석대표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對北 계속 門戶開放 闡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음 회담의 장소·날짜 등은 합의하지 않았으나 문호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北韓側도 우리의提議에 호응해 오리라고 기대함.</li> <li>○ 北側은 쌀 추가지원을 가장 크게 희망했으나 우리측은 제3국에서 열리는 회담에서는 協議할 수 없으며 회담 장소 및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.</li> </ul>
<p>1995. 10. 3</p> <p>孔魯明 外務部 長官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우성호 送還문제 유엔통해 解決摸索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성호 送還문제와 안승운목사 拉北事件에 대해서는 국제인권 관계기관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임.</li> <li>○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활용도 고려하고 있음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9. 30 平壤放送 보도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84 水災支援 선례 강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84년 남조선 수재민들에게 5만석의 쌀과 50만미터의 천, 10만톤의 시멘트와 759지합의 의약품을 보내주는 우리의 동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조치가 취해졌음.</li> <li>○ 1천8백만달러분의 구호물자는 남조선 당국이 友邦이라고 믿고 섬기는 미국과 일본의 2만, 10만달러와는 대비도 안되는 막대한 양임.</li> <li>○ 우리의 동포애적 구호조치가 실현됨으로써 처음으로 北과 南사이에 서로 돕고 도움받는 훌륭한 先例가 마련되었음.</li> <li>○ 우리 민족은 11년전 구호물자 인도인수과정에 있었던 선례를 잊지 말고 北과 南은 하나의 핏줄을 이은 한 형제라는 同族意識으로 더욱 합쳐져야 함.</li> </ul>
<p>1995. 10. 2 北京會談 수석 대표 전금철 記者會見 (北京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韓半島내에서의 南北對話 拒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南側이 쌀회담에서 정치적 조건을 달지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왔으나 회담이 깊어가면서 정치적 조건이 살아나고 정치대결의 희생물이 되고있음.</li> <li>○ 갑자기 장소를 조선반도내로 하자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논리 비약이며, 北南關係 및 對話가 정상적 궤도에 오를 때 국내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임.</li> <li>○ 議題는 쌀문제 단 하나이며, 기본의제에 충실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임.</li> <li>○ 우리는 쌀 때문에 정치적 자주성을 희생하지 않을 것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0. 11</p> <p>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記者懇談會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 正常通路가 없는한 對北經協 擴大不可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한 金正日의 권력승계 지연 등 대내정세의 불안정, 對南·對外 政策이 변화되지 않는한 對北經協을 확대하지 않을 것임.</li> <li>○ 남북간에는 통신과 대화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협력(경제인 방북규모, 대북투자 상한선 등) 확대는 더이상 하지 않을 것임.</li> </ul>
<p>1995. 10. 16</p> <p>金泳三 大統領 記者會見</p> <p>* 뉴욕타임스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南北頂上會談 時期 論議 不適切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는 北韓의 약속위반에 대한 배반감과 실망만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은 매우 다루기 힘든 상대임.</li> <li>○ 북한의 불확실성으로 지금 남북한 頂上會談을 이야기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함.</li> <li>○ 韓國이 쌀 수송을 재개하고 화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北韓이 먼저 납치한 우성호 선원들을 풀어주고 對南 비방 방송을 中止해야 함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0. 4                      勞動新聞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孔魯明 外務長官의 유엔總會 演說 非難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선반도에서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을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김○○ 일당에게만 있음.</li> <li>○ 우리의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남조선을 美國의 생화학무기 저장고로 전락시킨 저들의 정체를 가리워보려는 술책임.</li> <li>○ 진정으로 對話와 協力を 바란다면 반민족적 반인륜적 야만 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하며 國家保安法을 철폐하고 콘크리트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對話에 대한 誠意를 보여야 함.</li> </ul>
<p>1995. 10. 11                      外交部 副部長 최수헌 演說                      * 제50차 유엔총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美·北 平和協定 締結 거듭 主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南北韓간 평화보장체계문제는 91년 12월의 합의서 채택으로 사실상 문건으로는 마련된 것이나 다름없음.</li> <li>○ 이제 남은 것은 우리와 미국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임.</li> <li>○ 반인륜적인 대죄를 지고도 사죄하지 않고 있는 현 남조선 당국자와 마주 앉는 것을 전체 조선인민들은 허락하지 않음.</li> <li>○ 우리는 北南對話의 좋은 분위기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對話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있음.</li> </ul>

■ 1995年 10月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
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0. 17 中央放送 보도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金泳三 大統領의 NYT紙 회견 非難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신감이요 뭐요 하며 우리가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우리는 약속할 것도 없고 또 약속한 것도 없음.</li> <li>○ 우성호로 하여금 共和國 領海  깊이 불법침입하도록 한 김○○ 역도로서는 배의 석방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없음.</li> <li>○ 할것이 있다면 우성호를 침입시켜 北南關係를 惡化시키고 정세를 긴장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뿐임.</li> </ul>
<p>1995. 10. 18 外交部 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95 독수리 訓練 非難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美國이 본질상 팀스피리트의 재개나 다름없는 독수리 '95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조·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임.</li> <li>○ 이는 北南關係를 더욱 격화시키고 남조선 정권을 무력으로 뒷받침해주는 반평화적이며 반대화적인 행위임.</li> <li>○ 美國은 이제 더는 北南對話 재개문제에 대하여 말할 체면조차 잃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.</li> <li>○ 美國이 계속 협상거부적 행동을 취하면서 긴장격화로 나간다면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세를 대표하는 주된 요소인 케케묵은 정전체제를 뿌리채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10. 21 勞動新聞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拉北 우성호 送還 拒否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화국의 영해권이 침범한 86우성호의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.</li> <li>○ 김○○일당이 석방이요, 뭐요하며 감히 우리에게 사대질하려 드는 것은 공연한 생트집이며 우리에게 대한 도발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0. 24</p> <p>金泳三 大統領 美國 유엔協會 演說</p> <p>*世界指導者賞 수상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韓半島 平和定着 基本立場 提示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임.</li> <li>○ 첫째, 정전체제는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확고히 유지, 준수되어야 함.</li> <li>○ 둘째, 평화체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교섭되고 합의되어야 함.</li> <li>○ 셋째, 남북한은 상호관계를 대화를 통해 정상화 함으로써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여야 함.</li> <li>○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『상호이익이 되는 거래』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0. 21</p> <p>北韓 · KEDO, 輕水爐 供給協 定  관련 고위급 회담 (뉴욕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共同言論 發表文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위급 및 전문가회담을 내주에도 계속 개최, 공급협정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.</li> <li>○ 이번 회담은 실무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,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부 주요 문제에 대해 진전을 보았음.</li> </ul>
<p>1995. 10. 23</p> <p>勞動新聞 論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武裝間諜 浸透事件은 南韓 自作劇 主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무장간첩 침투사건(10. 17, 임진강)이라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필요에 따라 어느때나 꾸며내는 계획적이고 상투적인 모략극임.</li> <li>○ 미제와 괴뢰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남조선 인민들속에서 급격히 높아가고 있는 투쟁기운을 무마하고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하고 있음.</li> <li>○ 사건조작과 때를 같이하여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고 있는 정전기구에 사건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그지없는 노릇임.</li> </ul>

韓 國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0. 27</p> <p>吳隣煥 公報處 長官 對北聲明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北韓 武裝間諜 도발 즉각 中斷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는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행위에 대해서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항의하며, 이같은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.</li> <li>○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가 재발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할 것임.</li> </ul>

北 韓	
出 處	提 議 內 容
<p>1995. 10. 26</p> <p>비전향장기수 구원 대책 조선 위 代辯人 談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未轉向 장기수 送還促求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김○○일당이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대죄를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대화나 교류니 하는 것을 떠들어대기에 앞서 김인서·김영태·함세환 노인들을 공화국 북반부로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할 것임.</li> </ul>
<p>1995. 10. 30</p> <p>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北·日 修交關聯 接觸再開 用意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는 이번에 일본이 朝·日會談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임하겠다고 공식표명한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고 있음.</li> <li>○ 朝·日 두나라 사이에 불미스런 관계를 청산하고 선린 우호관계를 수립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며 확고함.</li> <li>○ 朝·日會談 재개를 위한 현 접촉실태를 놓고 볼 때 공은 이제 일본측에 넘어가 있음.</li> <li>○ 모든 것은 이제 일본측이 다음 걸음을 어떻게 떼는가에 달려있음.</li> </ul> <p>* 10. 30 하야시 日외무차관 기자회견 관련</p>



南北韓 統一・對話 提議比較  
( 追錄Ⅱ )  
〈1994. 11 ~ 1995. 10〉

---

1995年 11月 21日 發行

發行處：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

---

〈非 賣 品〉

